

예산학 연구 발전 세미나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의 지속 가능성 검토

예산문화원

[제1주제] 예산학의 지속 가능성 검토



예산학의 가능성과 기대 - 과제와 방향 - | 이해준(공주대 교수) / 9

1. '예산학'이란?
2. 예산 역사문화의 특성
3. 무엇, 누구를 위한 '예산학'인가?
4. '예산학',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향후 과제와 방향 -

토론 김경수(청운대 교수) / 25



내포의 중심, 예산학의 현황과 과제 | 곽호제(충남도립대 교수) / 29

1. 내포의 뿌리, 예산
2. 예산 지역의 연구 현황
3. 예산학의 숙제

토론 손세제(향토사연구가) / 47



지역학을 연 서울학의 어제와 오늘

| 박희용(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 51

1. 도시 서울의 정체성 연구의 시작 _ 서울학의 탄생
2. 서울학연구소의 연구활동
3. 본격적인 지역학 연구의 시작 _ 한국지역학 포럼

토론 김양식(충북학연구소장) / 69

[제2주제] 지속 가능한 예산학으로의 발전 모색



용인학연구소의 운영 실태와 과제

|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 89

1. 들어가는 말
2. 용인학연구소 개설
3. 관내 6개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4. 용인학 아카데미 운영
5.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용인학
6. 용인학 정기 학술대회
7. 용인문화유적 투어
8. 지역 원로 구술생애사 발간
9.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展)
10.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
11. 글을 마치며

토론 김종옥(전 공주대 교수) / 117



공주학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와 지역학적 과제 | 송충기(공주대 교수) / 121

1. 지역학과 아카이브: 원천 자료의 확보
2. 공주학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와 시사점
3. 지역 아카이브의 미래: '지역문화의 플랫폼'

토론 표운명(소설가) / 145



예산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 신익선(예산문화원 이사) / 149

1. 예산학의 태동과 생성과정
2. 예산학 연구의 과제
3. 예산학 연구 방법
4. 결어

토론 김종옥(전 공주대 교수) / 159

발간사

금년의 유례없는 폭염도 계절이라는 자연의 순환 법칙에 밀려 조석으로 한풀 꺾이는 듯한 입추(立秋)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문화원에서는 1,100년 예산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지역문화공동체로서의 군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 발전의 원동력 신장을 위해 지역학 강좌인 「충남학」과 「내포의 뿌리 예산학」 강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향후 지역민들의 정신문화 진작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예산학 연구 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해주시는 저명 학자님들의 발제문과 토론문을 집성하여 이 책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른 미래 천년 예산의 청사진을 만들어 가는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8일

예 산 문 화 원 장
공학박사 김시운

[제1주제]

예산학의 지속 가능성 검토

예산학의 가능성과 기대 - 과제와 방향 - (이해준)
내포의 중심, 예산학의 현황과 과제 (곽호제)
지역학을 연 서울학의 어제와 오늘 (박희용)



예산학의 가능성과 기대

- 과제와 방향 -

이해준(공주대 교수)¹⁾

1. ‘예산학’이란?
2. 예산 역사문화의 특성
3. 무엇, 누구를 위한 ‘예산학’인가?
4. ‘예산학’,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 향후 과제와 방향 -

1. ‘예산학’이란?

‘예산학’은 예산인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되살리고, 새로운 시대에 예산의 활력과 방향을 선도할 주역들을 길러내며, 그 방향과 의식을 고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와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에는 어김없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시대정신이 있었고, 그 주체들이 있었다. 바야흐로 21세기 예산지역도 경쟁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많은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바야흐로 타 지역과 구별되고,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 새로운 21세기를 힘차게 이끌어갈 ‘新 思考’ ‘新 主導人力’들

1) (현) 공주대 사학과 교수.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96-98)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99-01), 역사문화학회 회장(08-10), 공주대 문화유산대학원장(11-13), 한국서원학회 회장(11-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13-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05-15) 역임.

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예산의 전통과 문화도 현재에 얼마나, 또 어떻게 되살려질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되새기고, 또 예산인 스스로 느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유용하고 의미 있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예산인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필요로 하고, 또 실용적으로 재활용하려고 하느냐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남들이 아닌 예산인들이 해야 한다.

이제 예산인들이 이 같은 과제와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주역이 되게 하자는 것이 ‘예산학’이고, ‘예산학’ 발전에서 얻고자 하는 큰 목표인 것이다.

2. 예산 역사문화의 특성

1) 예산의 역사

예산은 내포의 중심도시이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 충남도청이 예산 지역에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 다시 한 번 부각되고 확인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오랜 내포지역 역사문화의 전통, 궤적과 무관하지 않다.

예산 지역은 이러한 역사와 문화유산들에 대한 광범하고 적극적인 연구로 이미 많은 자원들이 발굴 정리된 상태이다. 예산문화원과 향토사연구자들에 의하여 각종 자료 발굴, 문화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었고 문화유적과 관광, 축제, 보존과 활용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크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예산군’은 1914년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조선시대의 예산,

대흥, 덕산 3개 군현을 통합한 곳이다. 그리고 이들 중 덕산은 백제 이래 조선 초에 이르기까지 덕풍(德豊)과 이산(伊山)의 2개 군현으로 되어 있었다가 덕산으로 통합 개명된 것이다.

예산현은 백제시대 오산현(烏山縣), 통일신라시대 고산현(孤山縣)이었다가 고려 태조 2년(919)에 지금의 이름인 예산현으로 개칭되어 올해를 ‘예산 지명 1,100년으로 말하게 하며, 대흥현(大興縣)은 백제시대의 임존성으로서 660년 유명한 백제 부흥운동의 시발지였고, 4년 간 치열한 항쟁을 전개한 부흥운동의 거점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후삼국기에도 고려와 후백제 간의 치열한 결전의 현장이 된 중요한 곳이었다. 도청지역의 북쪽, 삼교읍에 해당하는 덕산은 고덕면 일대의 고려시대 덕풍현과 덕산면 지역의 이산군이 조선 태종 5년(1405)에 병합되어 덕산이 되었고, 이산은 고려 말 왜구가 창궐할 때 최영 장군이 도절제사의 영(營)을 설치하였던 곳이다. 이산의 군영은 서해 연안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는 중요한 군사 거점 역할을 하다가 조선 태종 16년(1416)에 해미현으로 이전한다. 해미읍성의 전신이 바로 이산진의 군영이었던 것이다.

한편 예산의 역사문화를 보면 참으로 많은 소재와 자원, 특징을 지닌다. 이들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산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하여도 손색이 없는 다양한 테마, 경쟁력 있는 소재들을 지니고 있는 곳이다. 예컨대 고대 이래 예산지역은 내포의 중심성을 지속적으로 지녔고, 역사와 유적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 백제 멸망 이후 수년 간 진행된 부흥전쟁의 거점이 예산 대흥지역이었다는 점,
- 예산 사면불과 가야산 수덕사가 말해주는 고대 불교와의 깊은 지역특성,
- 그리고 신라가 무너지고 고려에 의한 통일전쟁이 진행되던 때, 태조 왕건이 직접 예산을 방문하여 대민 교서를 발표하였고, 충청병영이 덕산에 있었던 것,
- 그리고 의종은 형제의 전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효와 예의 고장 예산,
- 학문 예술의 발전 지역인 예산이 보여주는 문화적 자존감,
- 한말의 정신사적 궤적

등등은 예산의 문화적 자존감과 상징성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윤용혁은 충남 도청의 예산, 홍성 시대의 시작이 이 같은 예산의 중심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라고 그 의미를 되새겨 주목하게 한다.

2) 예산의 역사와 문화성격

(1) 예산(대흥)은 660년 나당군에 의한 부여 함락 이후 663년까지 4년에 걸친 백제 부흥전쟁의 거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름 아닌 백제시대 대흥 지역(임존성)이 내포의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백제의 ‘서방성(西方城)’이 설치된 곳이었다. 백제는 전국을 동서남북중, 5방으로 나누었다. 일종의 광역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 가운데 도성의 서쪽 지역이 ‘서방’이고, 이 서방이야말로 대략 오늘날 내포지방에 해당한다. 이 서방성의 치소가 바로 대흥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임존성은 백제 부흥운동의 횃불을 올린 시발지인 동시에 부흥운동의 최후를 장식한 현장이다. 660년 당군 13만, 신라군 5만의 18만 대군이 수륙 양면으로 백제를 공격, 부여와 공주를 차례로 함락하였다. 나당군에 의한 부여 함락 이후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 대흥의 임존성(봉수산성)이었다. 흑치상지와 복신, 도침의 부흥군은 처음 임존성에서 당의 소정방 군을 막아 내었고, 이에 소정방은 의자왕과 여러 왕자를 포함하여 백성 1만 2천 800여 인을 포로로 하여 뱃길로 귀국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듬해 9월 왕자 풍이 귀국하여 항쟁하지만, 자체 내분으로 663년 9월 주류성이 함락되고 10월 나당군이 방어거점인 임존성을 공격하고 지수신(漣受信)이 저항하였지만 11월에 임존성은 당군에 의하여 함락되고 백제 부흥운동도 4년 만에 종식되었다. 663년 11월에 부흥운동은

중식되었지만, 백제 부흥에의 염원은 그 후에도 면면히 이어졌으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바쳐 헌신하는 충절의 정신은 내포 정신의 전통이 되었다.

(2) 덕산의 가야산은 백제 이후 국가의 주요 제사처로서, 그 전통이 조선조 말까지 1천 5백년 간 지속되었고 백제 이래 내포 지역의 정신적 구심점의 역할을 해왔다. 가야산에 백제 시대에 수덕사가 들어선 것은 이 지역의 종교적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봉산면 화전리의 불교조각인 사면불상도 백제시대의 금물현(덕풍현) 치소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 지역의 초기, 고대불교의 문화적인 모습은 예산이 고대부터 내포의 중심 문화거점이었음을 입증한다. 아마도 바로 이 같은 점 때문에, 왕도인 부여가 나당군에 의하여 함락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의 중심 공간으로 백제의 부흥운동이 예산 지역에서 활발했을 것으로 본다.

(3) 예산은 ‘의종은 형제로 알려진 대흥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는 원래는 효행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들이다. 예를 숭상하고 충효열 정려가 가장 많은 곳으로 저명한 예산은 학문과 예술의 텃밭이기도 하였다. 예산출신으로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유배를 마치고 귀향하여 일세를 마친 자암 김구(金絳, 1488-1534)는 글씨와 학문으로서 대표적 인물이다. 김구를 모시던 덕잠서원(德岑書院)은 1705년(숙종 31) 창건되어 1714년에 사액을 받은 예산군 유일한 사액서원이다. 글씨에도 뛰어나 안평대군 용, 장사언, 한호(谿, 楊士彦, 韓濩) 등과 함께 조선시대 전기 서예계의 4대가로 손꼽힌다. 그 후 이러한 예술은 한국의 최고의 서예가이며 고증학자인 추사 김정희에게 이어지며 신암면에는 그가 거처하던 고택, 묘소와 기념전시관이 있다. 이러한 예산의 전통이 바로 근대에 이르러 고암 이용로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하나 예산은 조선후기 성리학의 큰 주류를 형성한 권상하(權尙夏)의 제자들인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중 병계(屏溪) 윤봉구, 관봉(冠峰) 현상벽(玄尙璧), 매봉(梅峰) 최징후(崔徵厚)가 활동 유적이 있는 곳이다. 특히

이중 호락논쟁은 외암 이간과 남당 한원진에게서 심화되었는데, 바로 인성과 물성이 서로 다르다는 한원진의 주장은 윤봉구와 최징후로 연결되어 ‘호론(湖論)’으로 지칭되었고, 옥병계로 상징되는 가야구곡(伽耶九曲 : 觀魚臺, 玉屏溪, 濕雲泉, 石門潭, 噴花潭, 卓錫川, 臥龍潭, 孤雲壁, 玉梁瀑)이 바로 병계 윤봉구의 유서가 어린 곳이다. 한편 조선 후기 덕산은 실학자 성호 이익(李瀾)의 학문이 계승 발전한 거점이다. 이익의 숙부 이명진이 혼인으로 덕산에 거주하면서 이익의 친형인 이침(李沈)이 양자로 후사를 잇게 되고 이후 이용휴, 이병휴, 이삼환 등이 성호의 학문을 계승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게 된다.

(4) 예산은 천주교 전파에도 큰 영향을 미친 곳으로 여사울(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사람 이존창(李存昌)에 의해 1784년 조직된 여사울 신앙공동체가 유명하며 이에 의하여 내포지역에는 천주교 신앙이 급속 전파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이존창은 체포되었다. 공주감영에 이송되어 형을 받은 이존창은 풀려나 홍산, 금산, 고산(전라도)로 거주를 옮겨가며 활동하다가 1795년 고산에서 다시 체포되어 1802년 공주 황새바위에서 순교하였다. 이존창은 ‘내포의 사도’로 칭해진다. 가야사 터와 남연군묘 도굴 사건도 예산의 상징적인 유적지이다. 가야사는 대원군에 의하여 폐사되었으나 ‘금탑(金塔)’이 있었다는 자리에 남연군의 묘가 있다. 오페르트의 도굴사건으로 천주교 병인대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예산 지역은 항일운동도 활발하였다. 덕산 출신의 윤봉길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며, 예산 출신의 독립운동가로서는 이남규(李南珪, 1855-1907)와 김한중(金漢鍾, 1883-1921)도 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는 1919년 3.1운동의 봉기에도 예산은 적극적이었다. 3월 3일 내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예산 읍내에서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13일에는 대홍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장으로 나가 만세운동을 벌였다. 이후 1932년 예산농업학교를 중심으로 한 항일 비밀 결사 운동 조직이 드러나 가담자들이 실형을 받았고, 신간회 운동의 지부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3. 무엇, 누구를 위한 ‘예산학’인가?

1) 무엇을 위한 예산학인가?

지역학의 개념은 대체로 역사 문화적으로 동질성, 정체성을 지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모든 연구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며, 지역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학문이라 정의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역학의 속성을 정리한다면, 우선 특정 지역이 연구 대상이라는 점과 오랜 역사, 문화적 전통에 토대한 지역 정체성을 인식, 강화 혹은 확대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또 지역의 문화다양성을 통하여 지역민의 주체적 자기문화 인식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산학의 경우 누가,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공감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즉, 우리 지역문화의 현실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 지역문화의 先導 기능을 담당할 주도집단의 형성
- 객관적 지역문화자료 최대 확보(자료 뱅크)
- 학제적 연구인력의 총합(씽크 탱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바로 이를 보완할 대안 장치로 “예산학”이라는 학제적 연구와 조직이 상정되고, 분산·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문화 활동을 종합할 주체로서 지역민들의 이해와 참여 자세가 필요할 때인 것이다.

지역학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기 문화의 실체, 자기 문화의 특성과 성격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학은 이러한 지역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들 지역의 고유하고 특화된 자원을 계승 활용하고 특화시켜 발전 방향을 찾는 것까지 기대한다. 즉 지역학 연구는

- 지역 문화정체성 밝히기(지역특성, 지역민 주체)
- 분야별 전문성 벽 허물기(현황과 과제, 통합적 사고)
- 정책 및 개발에 문화 반영하는 마인드(교육과 활용)

등으로 지역주민이 인식, 계승, 공유, 향유하게 하는 역할까지를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학 자료(원형콘텐츠)를 수집하는 분야별 연구자, 그리고 이를 교육하고 홍보하고 활용하는 전문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고 방향을 정립하려는 개발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구조가 절실하다. 그럴 때 지역문화자원의 활성화는 실효를 거둘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역학 씽크 탱크이고, 여러 전문연구자 간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상생적 발전도 모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지역학의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이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논의와 그 주체들의 성장, 결집을 위한 힘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역학하면 예산학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 주체로 대학교수나 연구소의 연구원 같은 연구자나 전문가를 떠올리거나, 행정인력을 상정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지역학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지역의 주인인 지역민이 자신의 지역이 지닌 역사와 문화, 그 특성과 가치, 나아가 미래

적 발전 방향과 전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지역학의 주체는 누구인가?
 - : 연구자? 전문가?
 - : 행정?
 - : 지역주민?

- 지역학의 성격과 지향점은?
 - : 목표 대상 관점 의식의 면에서 넘나들기
 - : 학문? ≍ 사랑(愛)?
 - : 전문? ≍ 종합? 정체성?
 - : 연구? ≍ 이해, 교육, 활용, 개발, 계승?
 - : 역사문화? ≍ 지역발전, 개발, 문화예술, 관광, 자원경쟁력
 - : 교육, 강사 ≍ 참여의식, 주체 양성
 - : 과거? ≍ 현재와 미래?

다음으로 지역학의 성격과 지향점도 많은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가능하면 지역학과 관련된 논의 과정이나 연구발표에서 학문적이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심이 지역에 대한 사랑(愛)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감성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보완은 필요하지만, 학문성과 전문성과 함께 지역문화와 지역의 종합성, 정체성을 토대로 하면서 연구보다 [이해, 교육, 활용, 계승], 개발의 방향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 과거이 역사문화에 국한하거나 집중하기 보다는 그것이 토대가 되고 강점이 되어 현재와 미래의 지역 발전과 개발, 문화예술, 관광의 자원경쟁력으로 발전되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보다 참여의식과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어야 한다.

예산학이 그 기능을 완수하려면 현재 충남도의 산하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등의 기능이 통합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의 특수성과 현안과제를 감안한 官·産·學·研의 협력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며, 다분야 인력 풀이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 지역학의 선도 사례들

- 일본 가나자와의 가나자와학(金澤學)
- 이탈리아 볼로냐(Bologna)의 창조도시
- 중국 안휘성 徽州大學의 휘주학 코드
- 한국의 安東, 濟州, 木浦
- 충남학, 천안학과 공주학

예컨대 공주학 같은 경우 공주시와 공주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기본적으로 공주의 특수성과 현안과제를 감안한 官·産·學·研의 협력 모델을 지향하며, 대학의 강점인 다분야 인력 풀을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공주의 브랜드가치인 백제문화연구, 역사문화 관광·콘텐츠 분야를 기본으로 지역개발, 참여문화, 창작예술, 생태, 교육, 여성 등의 연구 분야가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조사연구, 학술사업과 함께

- 평생교육활성화(시민, 학생, 공무원) : 시민강좌, 교재편찬
- 지역 관련 자료아카이브 : 수집, 정리, 분류, 편찬
- 정책개발(시 현안과제, 중점과제, 대안과제)
- 지역의 경쟁력과 특성화, 취약분야 대안 연구
- 시민활동, 주민참여 사업 지원

등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사례일 것이다.

4. 예산학, 어떻게 할 것인가? - 향후 과제와 방향 -

1) 예산 문화콘텐츠의 특화와 차별화

미국의 미래학자 Peter Drucker(1909~2005)이 “전통문화는 미래산업의 승부처”라고 강조하였듯이 지역이 문화환경과 전통, 문화유산들은 마치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같이 고유가치, 부가가치를 지닌 미래 경쟁력이 있는 자원이다. 이들 문화자원의 가치를 바로 알고, 공감하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화 하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기도 한 것이다.

할리우드의 ‘스토리 대부분으로 저명한 Robert McKee(1941~)가 “역사(문화)란 무궁무진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 보물 상자다. 하지만 이 보물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현재성이라는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듯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우리가 이들 전통문화자원들 중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이다.

한편 문화 콘텐츠의 성패는 원형 콘텐츠의 “내용과 質, 價値”에 달려 있다. 즉 문화콘텐츠 개발은 ‘특이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그 가치를 특화하는 것인데, 전통문화자원의 콘텐츠 개발이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장기적·지속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현재 투여되는 노력의 몇 배 이상의 투자가 더 필요하다.

앞으로의 콘텐츠 개발과 문화산업은 지역민의 공감대와 자부심, 다양한 수요층의 확대 및 수요층의 성향을 고려한 원형콘텐츠의 선택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 콘텐츠들이 경쟁력을 지니려면 문화콘텐츠 개발자들의 전통문화 원형과 컨셉에 대한 이해 노력, 그리고 문화의 주체, 문화원형 연구자와 콘텐츠개발자들의 교감 확대 등이 필요하다. 바로 이점이 지역학, 예산학의 과제라 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라는 구체적 개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콘텐츠개발자(활용자)들은 ‘무엇’에 대한 인식이 불철저하다. 先後, 共生, 相生, 相補의 관계 의식이 부족하여 서로를 외면하는 경향도 보인다. 그런가하면 원형연구자들은 콘텐츠개발 방식에 기초적 지식이 부족하며 진정성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고, 재가공을 전제로 하는 콘텐츠의 특성과 수요층, 창의력 고려 부분을 예시하여 주면 좋을 것이다. 한 걸음 씩 상호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줄 것이다.

2) 지역민의 참여와 지속 발전

또 하나 지역학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 바로 지역 문화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지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하게 하는 노력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랑하지 못하며 활용하지 못하면 계승 발전시킬 의지도 없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감각적이고 적극적 노력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챙기며, 가장 성실한 문화지킴이가 된다면 그들은 문화를 계승한 최대의 수혜자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문화 수요층의 기대 변화와 참여문화의 확산은 현대사회의 대세이다. 현대인들은 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물질적 욕구보다 지적·정신적인 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다. 문화 향유층이 과거처럼 특수한 계층에 의해 독점되는 시대는 지나갔다. 대상 내용도 과거와 같은 전통문화나 문화재 중심에서 이제는 생활문화 전반으로, 그리고 현재적 가치와 체험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이는 가치 측면에서도 전통·과거지향에서 현재·미래적 관점의 문화가치로 변환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선 고려할 모델이 바로 지역문화 ‘시민문화대학’의

운영이다[이해준 외, 2003, 『평생교육 단계에서의 인문교육 현황 진단 및 정책 대안』 인문사회연구회, 2003]. 주민의 지역사랑 및 정주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학 관련 인문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시민문화대학이라는 명칭으로 제공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학은 인문교육과 지역성 강화에 직결되는 화두이기도 하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서도 지역학 연구와 지역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증대된다. 이는 일부 학자들이나 대학에서의 관심 영역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고향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에게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지역학은 예를 들면 지역의 지리, 생태, 자원, 환경,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등등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종합 인문교양교육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지역별 사회경제적 특성과 문화 환경은 각기 상이하고 차별성이 크다. 특히 지역문화 자료는 어느 한 분야 연구자의 특수한 자료로 설명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연구 지표가 되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분야와 문제의 식별로 다를 수 있고, 그런 까닭으로 여러 분야 종사자들이 합심하여 찾아야만 종합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 준비할 일은 지역별 특성을 철저하게 반영한 커리큘럼(프로그램) 개발, 지역학 교재의 발간(계층별 교재), 지역학 강사의 확보, 학습동아리의 양성 등등이다. 이는 문화연구자와 교육전문가, 지역사회 행정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추진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학, 향토사, 지역유적 답사, 지역문화 정신의 이해 등 지역별로 특화된 강좌를 지역문화 연구자와 인문학 연구자, 그리고 지역 내 교육현장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등이 공동토의를 통해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하여, 인문학 연구자는 관련 연구를, 교육 전문가는 연구결과를 외화시킬 수 있는 강좌를, 예술가는 지역민의 창작과 문화향수를 연계 발전시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제적 연구와 상생, 협력

다음으로는 학제적 연구를 통한 지역학의 완성에 관련된 것이다. 최근 '지역 연구가 두드러지게 활성화되는 현상은 여러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역문화연구는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저인망식 시스템과 자기도취를 바탕으로 성숙해온 특이한 연구 분야이다. 또 지역학 연구는 참여 연구자의 학문영역이나, 성향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인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별성, 고립성을 지니게 마련이고, 또 지역문화 연구층이나 관심이 미약한 곳에서는 경쟁력과 객관성도 약하여 주관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학제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다양한 분야자료로 종합적으로 보는 향토사연구자들이 애석하게 연구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전문학계의 경우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지 지역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학제적인 마인드로 지역학을 구상하는 올곧은 지역학 연구자는 언필칭 없다고 보아도 좋다. 그러나 이제는 경쟁력과 대응력의 확대를 위한 조직화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고, 바야흐로 지역문화연구는 학제적 연구와 융합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야만 기대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학의 1차적 연구과제는 역시 다양한 지역의 특수한 조건과 배경, 실정, 성격(지역성)을 구분하고 설명해 내는 일, 자원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지역학에 동참할 연구영역은 매우 넓고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지리, 생태, 자원, 환경, 역사, 문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관광, 문화산업 등등이 같은 연구목적으로 공동의 보조를 가질 수 있다. 탁상의 이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제연구가 가능한 분야가 바로 지역학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학의 연구나 활동경향을 보면 전문인력 사이에 연계 파트너쉽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전문인력 사이에 인간적 교류가 없으며, 상대방의 전문성을 고려하거나, 상호 공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역학은 학제적 연구[學際的 研究, Interdisciplinarity]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지역학이 바로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구현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지역학의 기초자료 정리는 분과 학문 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학에서는 이러한 분과학문의 벽이 높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논의가 자유롭게 진전되기 위해서 제기된 대안이 바로 학제적 연구이다. 학제적 연구는 분과학문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협력연구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런 단계에 이르러야 엄밀한 의미의 지역학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른다.

또, 문화자원 가치계승과 활용 면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 객관성을 잃은 콘텐츠가 활용 마니아들에게 주어져 생산되면, 지역정체성이 왜곡·굴절되며,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과 지역민에게 되돌아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결국 우수하고 가치 있는 문화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현대문화 속에 살아 숨 쉴 기회를 억제 당하게 돼, 문화 수용층인 지역민들도 지역문화에서 멀어져 가게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예산학은 ‘알기(연구)와 알리기(교육), 챙기기(조사), 활용하기(활용), 상생, 소통하기(연계)’가 동시에 유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지역학은 마니아층에서 지역민들로 그 수요 및 향유층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 확보’라는 지역학의 대전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예산 지역학의 의식과 수준은 발전하게 되고, 예산지역의 정체성과 미래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예산학은 예산의 역사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경제, 문화정치에 이르는 지역사회 전체로 그 외연이 확대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을 것이며, 마침내는 예산학 운동이 “바람직한 예산지역공동체 재복원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준의 강의 관련 주요 논저]

『지역사와 지역문화론』, 문화닷컴, 2001.

『충남의 역사와 정신』, 충남역사문화원, 2006.

『충남의 문화유적』, 충남역사문화원, 2009.

『충남의 민속문화』, 충청남도, 국립민속박물관(공저), 2010.

『고을과 마을의 문화이야기』, 인문석학강좌 28, 한국연구재단, 2015. 등

「예산학의 가능성과 기대 -과제와 전망-」 에 대한 토론

김경수(청운대)

이 글은 지역학에 대한 필자의 평소 주장과 생각이 그대로 녹아 있는 매우 소중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1, 2장이 원고의 총론격이라고 한다면, 3, 4장은 각론의 성격을 띠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요령 있게 정리되어, 독자로 하여금 예산의 어제를 넘어 오늘까지 이해하는데 매우 시의 적절하다. 뒷부분에서는 필자가 평소 많은 장소(교육)에서 강조하고, 원고 작성 시 논지를 전개했던 지역학에 대한 소신이 매우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다. 지역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논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정리되어 있다.

주제의 의미와 전달하려는 목적이 명확하고 충분한 글이다 보니, 토론자가 이에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논문의 의미와 성격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글을 읽은 뒤의 느낀 독후감과, 일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자 한다. 토론자의 의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1) 지역학의 소통과 협력 방안

- 발제문에서는 ‘지역학의 개념과 누가, 어떻게, 무엇을’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학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기 문화의 실체, 자기 문화의 특성과 성격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의 표현으로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발제문의 곳곳에 표현되어 있다. 토론자 역시 이에 대해 절대 동의한다.

- 이제까지의 역사 연구가 중앙사와 국가사 및 제도사 위주에서, 지역의 특징을 발견하고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로 변하고 있는 경향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혹시 이러한 지역학의 정체성 강조가 또 다른 지역(학)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 그리고 지역학이 해당 지역의 주민과 해당 지역의 연구자, 해당 지역의 대학 전유물로 고정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 발제자는 충남도 산하기관의 통합과 관·학·산·연의 협력 모델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제를 각 지역의 지역학 연구자와 연구기관 상호 연계 협력과 학제 간 통합 연구로 발전시키는 방안은 어떤지?

2) 예산학(지역학)의 방향성

- 예산학에 대해, 필자는 아직까지 누가, 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자(향토사가 포함) 혹은 연구기관의 부족인지, 지역학 연구의 방향성을 못 잡았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 따라서 향후 예산학의 연구와 발전, 정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토론자 역시 흥성학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위 지적에 대해 느끼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절한 답을 듣고 싶다.

3) 지역학 운영의 중복성

현재 충남 각 지역에서는 경쟁적이다 싶은 정도로 지역학 교재의 집필과 강좌의 운영이 중복적이다.

심지어 최초 충남학 교재의 집필진이 그대로 별도 시·군 지역학 교재의 집필진으로 참여한 경우도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동일한 지역에서 ‘충남학’과 ‘○○학’ 강좌가 중복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학이 지역학의 쇠퇴를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로 발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역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고,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 교재의 집필과 강좌의 운영이 초래할 폐단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한다.

일부의 단점으로 전체의 장점이 가려지면 안 된다는 전제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발제문 역시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잘 모르는 사람이 두서없는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어울릴 듯 싶습니다.

좋은 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포의 중심, 예산학의 현황과 과제

곽호제(충남도립대학교 교수)

1. 내포의 뿌리, 예산
2. 예산 지역의 연구 현황
3. 예산학의 숙제

1. 내포의 뿌리, 예산

1) 예산 지역의 행정구역 변화

현재의 예산군 지도를 보면 군계(郡界)의 윤곽이 특이하게 구부러진 형태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 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의 덕산 지역과 남쪽의 대흥 지역을 통합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문헌을 통해 예산, 덕산, 대흥 지역의 지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백제 때부터이다.

[표 1] 예산군의 행정구역 변화

구분 시기	德山		禮山	大興
	德豐縣	伊山郡		
백제	今勿縣	馬尸山郡	烏山縣	任存城, 今州

신라(경덕왕)		今武 → 伊山郡 領縣	伊山郡	孤山縣 → 任城郡 領縣	任存郡
고 려	919 (태조 2)			‘禮山’ 칭호	
	940 (태조 23)?	‘德豊’縣	伊山縣	禮山縣	大興郡, ‘大興’ 칭호
	1018 (현종 9)	→ 運州 속현	→ 運州 속현	→ 天安府 소속	→ 運州 속현 1172(명종 2) 大興縣(8面)
	1175 (명종 5)	監務 배치	監務 배치	監務 배치	
조 선	1405 (태종 5)	伊山郡 德豊縣 통합 → ‘德山縣’ 칭호			
	1413 (태종 13)	縣監 배치(12面)		縣監 배치(9面)	縣監 배치(8面)
	郡(郡守) 승격	1847(현종 13)		1895(고종 32)	1681(숙종 7)
	1895 (고종 32)	홍주부 예산군 · 대흥군 · 덕산군 → 충청남도 예산군 · 대흥군 · 덕산군			
1914. 3.		예산군에 덕산 대흥 병합(12개 면)			
면 → 읍 승격		1940. 예산面 → 읍 승격(1읍 11면) 1973. 7. 1. 삼교面 → 읍 승격(2읍 10면)			
1983. 2. 15.		오가면 효림리와 월곡리 일부 → ‘월산리’, 좌방리 일부 → ‘방아리’, 삼교읍 편입			

덕산 지역은 본래 백제 때부터 조선 건국 초기까지 덕풍현(德豊縣)과 이산군(伊山郡)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덕풍현은 백제 때 금물현(今勿縣)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금무(今武)로 고쳤고, 고려 940년(태조 23) ‘덕풍현(德豊縣)’의 지명을 갖게 되었다. 덕풍현은 덕산의 동쪽 20리 지점인 별아산(別鵝山) 서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시대에는 이 지역을 ‘고현내면(古縣內面)’이라 일컬었다. 이산군은 백제 때 마시산군(馬尸山郡)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이산군(伊山郡)으로 고쳤고, 940년(태조 23) 이산현(伊山縣)으로 강등되었다. 1405년(태종 5)에 덕풍현과

이산군을 병합하면서 ‘덕산현(德山縣)’이라 하여 ‘덕산’의 지명이 처음 사용되었고, 1413년 현감을 파견하여 12면(面)을 관할하였다.

예산현(禮山縣)은 백제 때 오산현(烏山縣)이었고, 신라 경덕왕 때 고산현(孤山縣)으로 고쳐 임성군(任城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919년(태조 2) ‘예산(禮山)’이라 고친 후 예산



[조선시대의 예산·덕산·대흥]

현으로 회복하였으니 1,100년 전의 일이고, 전국의 군현(郡縣) 명칭으로 가장 빠른 시기에 지어진 이름이다. 태조 왕건(王建)이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아산만 일대의 해상세력과 동맹관계를 맺었는데, 이 일대의 민심이 왕건을 지지하고 견훤을 배척하였다. 왕위에 즉위한 이듬해에 ‘오산(烏山)’을 ‘예산(禮山)’으로 고치면서 ‘태조에게 예절을 지킨 지역’이란 의미의 지명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 초 덕풍현, 이산현, 대흥현의 3개 현(縣)이 운주(運州=洪州)에 소속되었으나 예산현은 1018년(현종 9) 천안부(天安府)에 소속되었는데, 이러한 사실도 예산현이 왕건 때부터 고려의 중앙세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1413년(태종 13) 예산에 현감을 파견하여 9면(面)을 관할하였다.

대흥현(大興縣)은 백제 때 임존성(任存城, 또는 스주)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임존군(任存郡)으로 고친 후, 고려 태조 초에 대흥군(大興郡)이 되면서 ‘대흥’의 지명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172년(명종 2) 대흥현으로 강등된 후, 1413년(태종 13) 현감을 파견하여 8면(面)을 관할하였다.

한편 1895년(고종 32) 갑오개혁으로 전국의 군·현이 군(郡)으로 통일

되었고, 이때 예산현도 예산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러나 갑오개혁 이전에 대흥현은 1681년(숙종 7) 대흥군으로 승격되었고, 덕산현은 1847년(헌종 13) 덕산군으로 승격되었다. 그 이유는 왕족의 태(胎)를 봉안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즉 대흥군은 현종(顯宗)의 태실이 봉축되었기 때문이고, 덕산군은 원손아지씨(元孫阿只氏)의 태실이 봉축되었기 때문이다.

갑오개혁 때 전국을 23부로 개편할 때 예산군·덕산군·대흥군 3개 군은 홍주부(洪州府)에 소속되었다가, 이듬해인 1896년 충청남도(忠淸南道)에 소속되었다.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덕산군(德山面·古德面·插橋面·鳳山面)과 대흥군(大興面·光時面·新陽面·峰山面)을 예산군(大述面·任城面·呑可面·新巖面)에 병합하여 12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2) 내포의 뿌리, 예산

조선시대 이래 ‘내포’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는 좁은 범위를 지칭하는 지명이고, 둘째는 아산만으로 들어오는 삽교천 일대의 수역(水域)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셋째는 몇 개의 군현 이상의 넓은 범위로서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는 첫째와 둘째의 내용만 언급하겠다.

첫째 내포가 지명으로 사용된 사례는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한천(無限川)에서 덕산(德山) 경계까지 가는 길이 12리이니, 곧 내포(內浦)로 왕래하는 대로(大路)이다.

<『여지도서(輿地圖書)』 충청도 예산 도로조>

위의 내용은 예산에서 사방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 서쪽으로 연결

되는 도로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된 덕산 경계, 즉 내포는 정확한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보아 어느 지점을 말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행정구역에서 덕산현 지역은 현재 삽교읍의 상당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여지도서』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행정구역을 현재의 행정구역과 비교하면 다음의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예산현과 덕산현과의 경계는 현재의 경계인 삽교천 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6~7리 정도인 삽교읍과 오가면과의 경계에서 구분된다. 위에서 언급된 무한천에서 12리 지점이 곧 내포와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지도서』에서 언급한 내포는 과연 어디일까? 내포라는 지명이 언급된 것은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한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표 2] 조선후기 덕산현 마을 현황

德山縣(조선후기)					插橋·古德(현재)		
행정구역 명칭		편호	남	녀			
場村面	佳佐洞里	70	57	172	가재울	新佳里	插橋
	石谷里	82	42	153	독골		
	頭里	71	107	271		頭里	
	玄化里	74	74	145	보안말		
	木金里	40	52	58	?	?	
	下村里	103	155	538		下浦里(?)	
道用面	用里	98	175	133	用里		古德
	九萬里	137	319	326	九萬里		

[표 2]에서 보듯이 조선 후기에 편호와 인구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많은 곳은 장촌면 하촌리와 도용면 구만리이다. 장촌면 하촌리는 조선시대에는 덕산현에 속해 있었으나 1914년 당시의 삽교면 으 편입된 곳이고, 명칭도 하포리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좁은

의미의 지명으로서의 '내포(內浦)'는 바로 이곳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내포가 아산만을 중심으로 한 수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그리고 더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내포의 개념과 지역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자료로는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가 주목된다. 조선후기의 실학자 이중환에 의해서 저술된 『택리지』의 「팔도총론(八道總論)」(忠淸道條)에서는 내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충청도에서는 내포(內浦)가 가장 좋다. 공주에서 서북쪽으로 200리 쯤에 가야산(伽倻山)이 있다. 서쪽은 큰 바다이고 북쪽은 경기의 바닷가 고을과 큰 못[大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 곧 서해가 쑥 들어온 곳[斗入處]이다. 동쪽은 큰 들[大野]이고 들 가운데에는 또 큰 개[大浦] 하나가 있으니, 이름이 유궁진(由宮津)으로 밀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를 이용할 수 없다. 남쪽으로 오서산에 막혀 있는데 가야산으로부터 온 맥으로 단지 동남쪽으로 공주와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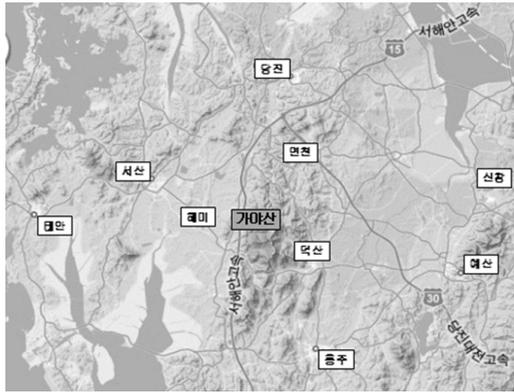
가야산의 앞뒤에 있는 10고을을 함께 내포(內浦)라 한다. 지세(地勢)가 한 모퉁이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큰 길목이 아니므로 임진(壬辰)과 병자(丙子)의 두 차례 난리에도 여기에는 미치지 않았다. 땅이 기름지고 평평하다. 또 생선과 소금이 매우 흔하므로 부자(富者)가 많고 여러 대를 이어 사는 사대부(士大夫) 집이 많다.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忠淸道條.>

이 글의 전반부는 내포에 대한 총론격의 설명이고, 후반부는 내포의 각 고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한 각론에 해당한다. 전반부에서는 내포의 중심지는 가야산이고 가야산 앞뒤의 10고을을 내포라고 한다고 하였다.

내포지역은 '비산비야(非山非野)'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그 한가운데 우뚝 솟은 가야산 자락이 어디에서도 보인다. 가야산 정상(해발 677m)에서는 당진과 아산 북쪽의 아산만으로부터 서쪽의 천수만에 이

르기까지 모두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이중환이 언급한 10개 고을이 가야산에서 육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을 말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내포의 지리적 환경은 내포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가야산 주변의 10개 고을

를 지니게 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대외적으로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내포지방이 바다를 통한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현존하는 태안마애삼존불, 서산마애삼존불, 예산 화전리의 사면석불입상 등은 이지역이 중국 선진문물이 수입되는 경로였음을 대변해 준다. 또한 조선후기에 이르러 내포지방 사족집단의 구성과 농업경영의 사회적 변천 등으로 보아서, 이 지방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민중의 입장에서 크게 걸림이 없이 수용하고 이를 생활화하였다. 이러한 측면은 이 지역의 실학적 학풍과 천주교의 수용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의 역사에서 대개 17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의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학풍인 실학은 당시의 시대적 풍조로는 진취적인 성향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근기(近畿) 남인학자들이 선도했던 실학운동은 내포지방에서도 전개되었다. 이 같은 내포지방의 실학풍은 개방성향을 가진 이 지역에서나 가능하였던 것이다.

내포지역의 지형은 폐쇄적이었으나, 오히려 다른 지역과의 교통은 원활한 편이었다. 고려시대 이래 이용되었던 조운로가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처럼 서북부에 펼쳐진 바다를 이용한 뱃길이 주로 이용되었으며, 서해안으로 돌출된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복잡한 리

아스식 해안과 내륙 깊숙이 형성된 해안선의 곳곳에 포구(浦口)가 발달하였기 때문이었다.

바다를 이용한 원활한 교통로인 뱃길은 물자(物資)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과 어물은 중앙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내포지역의 내륙에 가까운 곳에 형성된 포구에 공급될 수 있었고, 내륙에서 생산되는 미곡(米穀) 등의 농산물은 다시 뱃길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물자들이 유통되는 지점에 장시(場市)가 형성되었다.

19세기 전기 내포지역 장시의 장시망은 군현의 읍치, 즉 홍주·예산·서산·면천·해미·덕산·당진·대천[현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이 중심이 되었다. 지방의 장시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주로 보부상(裸負商)에 의해 운반·판매되었다. 보부상은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머리에 이거나 지게로 지고 육로로 장시나 민가를 찾아다니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으로, 교통의 발달이 부진했던 전근대시기에 내륙지역의 상품 유통을 담당한 계층이었다.

내포의 중심에 위치한 예산은 근대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주목을 끌 만한 두 개의 기업이 설립된 곳이다. 하나는 1913년에 설립된 호서은행(湖西銀杏)이라는 보통은행이고, 또 하나는 1926년에 설립된 충남제사(忠南製絲)라는 생사(生絲) 제조회사였다.

호서은행은 1913년 현재 조선에 본점을 두는 11개의 보통은행에서 설립연도 순으로는 9번째에 해당한다. 또 대부분의 보통은행이 대도시 혹은 그 인접지역에 설립되었지만, 호서은행은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한편 1913년 현재 조선에 본점을 둔 11개의 보통은행 중 조선인은행은 4개가 있었는데, 경성 이외의 지역에 있던 보통은행은 예산의 호서은행이 유일한 것이었다. 충남제사 역시 일제시대 대표적인 조선인 기업의 하나였다. 종업원의 수에서 보면 조선제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장이었다. 또한 충남제사를 제외한 모든 기업이 경성에 소재하는 회사였지만, 충남제사만이 유일하게 읍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예산은 근대 조선인 금융업 및 제조업 발달사에서 볼 때, 경성을 제외하면 조선에서 가장 선진적인 지역의 한 곳이었다. 예산에서 이토록 일찍부터 근대적 기업이 발전하게 된 것은 결국 입지적 조건 이외의 무엇인가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 다른 이유는 바로 근대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설립을 추진하였던 인물이 이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2. 예산 지역의 연구 현황

대흥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어 이미 선사시대부터 예산 지역이 사람이 살았던 현장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백제 멸망 이후 부흥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과 현장이었던 임존성에 대하여 다양한 자료에 언급되고 유물과 유적이 당시에 예산 지역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을 대변한다. 예산 지역에 대한 자료는 중세 고려와 근세 조선시대를 이어서 근대시대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예산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와 서적편찬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을 분야별·시대별로 분류하면 [표 3]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3] 예산 지역 역사연구 현황

	단행본				연구 논문				보고서				계	
	고 대	중근 세	근 대	총 합	선 사	고 대	중근 세	근 대	총 합	선 사	고 대	근 대		총 합
고고학	1				1					1				3
유물유적		1		4									1	6
불교,미술						5			1					6
건축							1							1
지리,지명				1										1
마을				3										3
언어				3										3
민속		1		4		2	1		3					11
음악 민요			2											2
사회			1				4	1				1		7
경제							1	1						2
사상							2							2
인물		1		2				2						5
부흥운동	1					1								2
임존성						2					2			4
총효				1										1
종합				1				1						2
자료집		1	1	2										4
계	2	4	4	21	1	10	9	5	4	1	2	1	1	
	31				29				5					

[표 3] 예산 지역의 연구 현황¹⁾에서 볼 수 있듯이, 서적 간행 및 연구 결과가 많이 누적된 분야는 민속(11), 사회(7), 그리고 유물·유적, 불교·미술(이상 각각 6) 등이었다. 민속 분야의 빈도가 높은 이유는 전통의례 및 풍물, 산신제 및 장승제 등 민간신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유물·유적은 임존성의 발굴 및 조사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불교·미술은 화전리 사면석불과 관련하여 빈도가 높았다. 연구물의 서적 형태로는 단행본(31)이 가장 다수였고, 연구 논문(29)이 그 다음, 보고서의 형태(5)는 가장 적었다. 대체로 연구 현황에 조사된 결과물이 몇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시대적으로 근대시대보다는 고대시대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임존성에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전개되었고, 봉산면 화전리에서 4면석불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예산문화원에서 발간한 소규모의 책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단행본이 다수일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연구 현황은 예산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내포의 근원지인 예산 지역에서 전개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다양하고 진취적이며 역동적이었던 변화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전개되었다. 이 지역에서 생활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술보다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범위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예산 지역의 연구 현황은 『한국사연구회보』(국사편찬위원회 발간)에 수록된 내용과 예산문화원에서 발간한 것으로 확인(예산문화원 홈페이지 수록)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인근 지역과 중복되는 자료와 인물 개인 연구 자료의 일부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3. 예산학의 숙제

1) 예산학의 주체 범위 확대

지역학의 주체는 지역학을 연구하고 이끌어가는 주도세력 및 이들과 더불어 참여하는 세력이 모두 포함된다. 이 주체에는 그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까지도 포함된다. 즉 주도 주체와 참여 주체가 서로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역학에 대한 관심은 1999년 서울 정도(定都)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수립된 서울학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이후 다른 시도에서도 급격히 고조되었다. 그러나 충남학은 2010년을 전후하여 시작된 충남 지역의 시·군 지역보다도 늦은 2014년에 시작되었고, 예산학은 2017년에야 시작될 수 있었다.

대체로 지역학이 일찍부터 시작되어 활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은 그 지역에 소재한 대학들이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학은 서울시립대학교에 1999년 서울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인천학도 2002년 인천시립대학교에 인천학연구원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천안학은 2009년부터 나사렛대학교를 비롯한 천안 지역의 7개 대학에서 강좌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용인학(한국외국어대학교 등 6개 대학), 아산학(순천향대학교, 이상 2010년부터), 공주학(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센터), 홍성학(청운대학교, 이상 2012년부터)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운대학교에서는 홍성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홍성학 경진대회’를 개최해 홍성의 발전방향을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율과 홍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시작	주관 기관
서울학	199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경기학	2002.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인천학	2002.	인천시립대학교 인천학연구원
부산학	2002	부산발전연구원
충남학	2014.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천안학	2009.	나사렛대학교 등 7개 대학
용인학	2010.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6개 대학
아산학	2010.	순천향대학교 아산학연구센터
수원학	2011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공주학	2012. 센터 설립	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센터
홍성학	2012.	청운대학교
당진학	2012.	당진시
예산학	2017. 6. 22.	예산문화원

예산에서도 현재 예산읍 대회리에 소재하고 있는 공주산업대학교와 연계하는 방법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연계하는 방법, 그리고 사회 단체를 연계하여 예산학의 참여 주체를 확대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서 가능하다면 주도 주체와 참여 주체의 거리를 좁혀야 참여 주체의 참여율도 고조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과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산학의 주도 주체 또는 참여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다.

2) 지역별 특성화된 영역을 설정하고 확대

지역학은 그 지역의 역사 영역부터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참여 주체의 관심은 다양하기 때문에 영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 주체의 관심이 역사 영역 이외에 지역의 행정 및 정책, 지리, 자연, 환경, 경제, 예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 영역도 변화해야 한다.

예산군의 경우

- * 역사 - 백제부흥운동 및 임존성 연구·보존 이외에
역사의 주체 인물 찾기(의병, 독립운동, 동학, 실학 및 천주교, 6·25전쟁)
성씨 및 뿌리 찾기(족보 찾기, 계보도 그리기)
역사 현장 및 유적·유물 답사, 체험
- * 예술 - 서체(서예) 연습, 탁본 체험
- * 자연 생태 - 황새(연구?), 민물고기(연구?), 사과(연구?), 쪽파(연구?), 나무, 온천(연구) 등
- * 전통 민속 - 전통 놀이 발굴, 마을신앙 조사·연구

3) 예산학의 역할 설정

- (1) 역사 자료 수집·보존·활용
- (2) 예산 및 인근 지역까지의 역사문화 자원 조사 연구
- (3) 문화 관련 정책 개발 및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연구
- (4) 평생교육 진흥,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 (5) 지역 생태, 환경 조사 연구

<참고문헌>

- * 예산향토사연구회[편], 『(任存城) 百濟復興軍戰史』, 1989.
- * 예산향토사발굴조사단[편], 『예산의 脈』-유물·유적편, 오성장학회, 1991.
- * 예산군[편], 『천방산하록 마을이야기』-대술면 상항리·방산리, 1992.
- * 예산군·충남역사문화연구소[공편],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2002.
- * 예산문화원·편찬위원회[편], 『(禮山) 大興 任存城 연구』-2008 향토민속 발굴 사업, 2008.
- * 예산문화원, 『晦庵書院創建錄』, 2003.
- * 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共編], 『禮山 任存城』-文化遺蹟 精密地表面調査, 2000.
- * 이향복 [외], 『山神祭와 洞契』-上, 禮山文化院, 1993.
(禮山의 民俗; 2편 권말에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권곡1리(고새울)의 山神 祝文 수록).
- * 예산군, 『禮山の 열』, 1982.
- * 성부제, 『예산군 강역변천사 연구』-2009 향토민속 발굴 사업, 예산문화원, 2009.
- * 이호형·이상복·정봉구·박종진, 『예산 임존성 현황조사』, 東邦文化財研究院·禮山郡, 2017.
- * 朴萬植·李達勳, 「忠淸地方의 李朝 上流住宅考(3) -禮山 李廣任先生 古宅을 中心으로-」, 『百濟研究』 제8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7.
- * 池健吉, 「禮山東西里 石棺墓出土 靑銅一括遺物」, 『百濟研究』 제9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8.
- * 朴永福·趙由典, 「禮山百濟四面石佛調査 및 發掘」, 『文化財』 제16호, 문화재관리국, 1983.
- * 金聖甫, 「日帝下 朝鮮人 地主의 資本轉換 事例 -禮山의 成氏家」, 『韓國史研究』 76, 1992.
- * 朴永福, 「禮山 百濟四面石佛의 考察」,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1984
-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편,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제1집 禮山郡篇, 1986.
- * 百濟文化開發研究院 편, 『忠南地域의 文化遺蹟』 第9輯, 禮山郡篇, 1995.
- * 崔錫源, 「百濟 石造彫刻의 石質 -충남서부지역 백제마애불의 경우」, 『백제의 조각과 미술』, 공주대박물관·충청남도, 1992.
- * 池秀傑, 「忠南 禮山公立農業學校 學生秘密結社 組織事件에 대한 一考察」, 『滄海朴秉國教授停年紀念 史學論叢』, 1994.

- * 최병길, 「百濟 石佛光背의 圖像學的 研究 -忠南 禮山郡 鳳山面 化田里 四面佛을 中心으로-, 『郷土史研究』 第八輯, 韓國郷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96.
- * 李南奭, 「禮山 鳳首山城(任存城)의 現況과 特徵」, 『百濟文化』 第28輯 -백제 부흥운동과 임존성의 제문제-,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9.
- * 김갑동, 「百濟 以後의 禮山과 任存城」, 『百濟文化』 第28輯 -백제 부흥운동과 임존성의 제문제-,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9.
- * 윤용혁, 「禮山 香泉寺의 역사와 유물」, 『百濟文化』 第28輯 -백제 부흥운동과 임존성의 제문제-,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1999.
- * 林秉兆, 「朝鮮時代 官僚層의 內浦地方 定着過程」, 『문화역사지리』 통권13호,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2000.
-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古文書集成』 61 -禮山 月谷 韓山李氏 修堂古宅篇-, 2002.
- * 이문중, 「禮山 古德의 驪州李氏 一門과 實學의 地域化」, 『문화역사지리』 23, 韓國文化歷史地理學會, 2004.
- * 윤경진, 「고려 태조대 鎭 설치에 대한 재검토」 -禮山鎭·神光鎭을 중심으로-, 『한국사학보』 40, 고려사학회, 2010.
- * 전경목·심재우·조영준·양선아, 『장돌뱅이의 조직과 기록』-예산·덕산·면천·당진 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 김성보, 『日帝下 禮山 成氏家の 資本蓄積過程과 政治活動』, 연세대학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7.
- * 吳允熙, 「內浦地方의 埋香碑」, 『史學研究』 58·59, 韓國史學會, 1999.
- * 주영하, 「1609~1623년 忠淸道 德山縣 士大夫家の 歲時飲食 -조극선의 『忍齋日錄』을 중심으로-」, 『藏書閣』 38,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 * 沈正輔, 『百濟 復興軍의 主要據點에 關한 研究』, 단국대학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3.
- * 許榮珍, 『大院君 執政期 Oppert事件 研究』, 이화여자대학교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89 .
- * 李殷昌, 德山 伽倻寺址의 石造遺物, 『考古美術』 36 第四卷 第七號, 考古美術同人會, 1963.
- * 韓天熙, 「19世紀 衙門屯田의 實態分析」 -宗親府 大興郡·陽川縣 屯田을 中心으로-, 『사학지』 24, 단국사학회, 1991.
- * 변동명, 「城隍神 蘇定方과 大興」, 『歷史學研究』 제30집, 湖南史學會, 2007.
- * 곽호제, 「朝鮮後期 德山地域 驪州李氏家の 學問的 性格」 -西洋學問에 대한

對應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권 1호, 2004.

* 곽호제, 「朝鮮後期 ~ 일제 강점기 내포지역 장시의 형성과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7권 2호, 2004.

곽호제 교수의 「내포의 중심, 예산학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평

손세제 (철학박사(중국철학), 향토사연구가)

곽호제 교수의 온화한 성정처럼 읽는 이에게 힐링의 편안함을 주는 글이다. 우리의 역사가 저자의 성품처럼 이렇게만 흘러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논문에서는 ①예산군의 성립과 변천에 대해 정리한 후, ②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개념 '내포'를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 ③내포 지역의 전체적인 자연 환경을 조망하는 가운데, ④ '내포'라는 환경과 바다와 연해 있는 지역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이 지역이 과거 외국 문물 수용의 창구 역할을 했음을 말한다. ⑤그리고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 개방성 진취성이라는 지역 정서가 싹 터, 이로 인해 실학, 천주교 등이 유행했고, ⑥국토의 남북을 잇는 기착지라는 해양 환경과 풍부한 농수해산물 덕분에 장시, 보부상이라는 경제 집단들이 생겨났고, ⑦이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읍면 단위에서는 좀체 찾아볼 수 없는 근대 기업(호서은행의 설립, 충남제사의 설립)을 설립시켰다고 했다. 그리고 발표를 마치면서 ⑧예산에서 근대 기업이 설립 발전한 것은 이 지역에 열려 있는 경제 마인드를 가진 역사적 인물이 실존했음을 보여 준다고 했다.

그런 다음 논문에서는 예산 지역의 연구 현황과 연구 과제에 대해 저자 나름의 고견을 제시하고 있다. ①먼저 예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학계의

연구 성과의 특징을 분석하고, ②앞으로 예산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③연구 과제와 연구의 주체, 범위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④각 시군에 설립된 “지역학 연구소”의 현황을 살펴 가면서, ⑤예산학에서만 다룰 수 있는 고유하고 정당한 주제들을 몇 가지 사례로 압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저자의 글은 학계에서 연구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고 있다. 예산의 역사와 지리, 환경 등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토론 거리도 눈에 띄지 않는다. 굳이 문제를 제기하자면 사회경제사적 분석, 예산군 관내의 지역색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 동안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꺼리고 회피하여 왔던 우리 학계의 관행과 타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 학계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천착(穿鑿)했다면 저자의 글은 지금의 패턴과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토론자는 이 점에 대해 질의하는 것으로, 저자가 여러 사정 때문에 밝히지 못했거나 고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1. 내포라는 환경과 지정학적 요인 그리고 지역민의 개방적 진취적 성정(性情) 때문에 이질적인 문화의 수용과 성립이 가능했다고 하였는데 혹 이것은 결과론적 분석이 아닌지?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 간 것은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과, ‘날씨가 추워졌으니 온도계의 눈금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지? 온도계가 고장이 나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은가?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아닌지? 이 지역에 만연했던 사회경제적 질곡;(토지소유관계, 직업구성, 신분적 차별, 대내외적 소외감)을 말함이다. 그 출구로서 또 새로운 대안의 마련책으로서 이질적인 것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이것을 개방성 진취성의 문제에만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새로움’에는 ‘일탈’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2. '내포지역은 지형은 폐쇄적이었으나 교통은 원활한 편이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대내외에 걸친 경제적 교류 확대를 가져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선도하였다고 하였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것은 지역 경제의 외부 종속 내지 수탈(예를 들면 임난 이후의 경화 사족(宮房)의 대거 진출) 등을 가져와 지역민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했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호서지역 사람들은 간사하고 음흉하다"는 말이 있게 된 것은 아닌지? 이것은 내포에서 일어난 각종 변란(동학, 천주교, 일제강점기에는 농민운동과 사회주의 운동)과 신학문(미륵신앙, 서학, 성호학, 각종 계몽운동)의 융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 재경지주들의 진입이 적었던 홍주목에서는 의병전쟁 등 무장투쟁이 활발했다면, 재경지주들이 대거 진입하였던 예산 지역에서는 기업 설립 학교 설립 등 계몽운동이 활발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어떤지?

3. 예산 지역에 대한 분석과 고찰이 매우 심플하다. 1913년 이전만 해도 고유성과 독자성을 갖고 있던 '대흥' '덕산' '예산'이 이제는 개념도 생소한 '예산' 속에 편입되어, 고유의 지역색이 다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때때로 대립하고 갈등한다. 이것을 어찌 할 것인가?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그리고 특수한 것은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의 주제는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이 아닌가? 또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라는 면도 있지만 사안(史眼)의 구현이라는 면도 있다. 역사는 과학이기도 하지만 예술이기도 한 이유이다. 예산학을 연구한다면 '이제까지의 역사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그러나) 앞으로의 역사도(는)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사안(史眼)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겉으로 드러난 사실(史實)만을 기준 없이 나열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학의 성격을 구명(究明)하는 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될 것이다. 이런 면을 고려하

여 기존의 연구 성과는 물론, 현재 각 지역에 내재한 지역색도 다시 분석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4. 연구 주체와 관련하여 예산학이 예산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예산군민과 예산학은 형식적으로는 어떠하다 해도 내용적으로는 심정적으로 일치되는 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군민을 떠나서 예산이 있을 수 없고 또 예산을 떠나서 예산학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예산에는 각기 다른 여러 개의 군현이 있었다. 이들 지역의 특색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뭉뚱그려 이른바 ‘예산학이라 이름 짓고, 단지 과거의 화려했던 것, 현재 걸어로 드러나는 것만 보여준다면, 오늘을 사는 예산군민(각 지역민)에게 형식적 일체감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고유함의 보존에는 하등의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정신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까? 머리 속에만 있는 ‘보편’으로서의 예산학의 구현이 아니라 지금 그곳에 살고 있는 ‘특수’한 사람들의 정서를 담은 예산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예산을 연구해 온 지역 학자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이왕 하기로 했으면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전담할 전문학예사도 초빙하여 내포의 중추(中樞)답게 모든 지역민이 함께 하는 새 역사의 장을 열어가는 연구소가 되었으면 한다.

지역학을 연 서울학의 어제와 오늘

박희용(서울학연구소 수석연구원)

1. 도시 서울의 정체성 연구의 시작 _ 서울학의 탄생

1994년은 서울이 조선 왕조의 수도로 등장한 지 6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였는데, 이때 대두된 문제가 ‘서울다움이 무엇인가’라는 서울의 정체성 문제였다. 그 동안 당면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와 개별 분과학문별로 서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천년 이상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 대도시로 성장한 서울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90년대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화의 흐름이 본격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서울학’이라는 새로운 지역학(地域學)을 육성하여 역사도시,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서울시에서 서울학연구소를 설립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1993년 6월 30일, ‘서울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학연구소가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부설연구소로 설립되었다.¹⁾

1) 지금은 자연스럽지만 당시 도시명에 ‘학’이라는 명칭이 붙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서울학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① 서울에 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②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서울학을 육성하며, ③ 그 성과를 시민에게 교육, 전파하여 서울 시민의 공동체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서울학연구소에서는 서울학 연구지원 사업을 통해 개별 분과학문에서는 소화하기 어려운 서울의 여러 모습들을 규명해 왔으며, 사료탐사 사업을 통해 개별 연구자들이 축적하기 어려운 서울관련 사료(국내외 문헌, 사진, 지도, 그림, 슬라이드, 영상기록 등)를 축적하여 연구자 및 서울시, 서울시민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으며, 학술행사와 출판사업을 통해 연구소의 성과를 공유해 오고 있다.

또한 서울학연구소의 창립을 계기로 하여 전국 각 지역에 지역학 연구소들이 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잇달아 창립되어 2018년 현재 부산학·인천학·울산학·전주학, 대구경북학, 전주학 등이 대학부설연구소 또는 ○○발전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활동 중에 있다.

중국에서도 1998년에 서울학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북경연합대학 내에 북경학연구소를 창립하였다. 이후 서울학연구소와 북경학연구소는 양국의 수도를 연구하는 지역학연구소로서 꾸준히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018년 서울학연구소 25주년 국제심포지엄에 북경학이 함께 했고, 오는 9월에는 북경학 20주년 국제심포지엄에 서울학이 북경학과 함께 할 예정이다.

이처럼 서울시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건립한 서울학연구소는 국내외 지역학연구소의 종주(宗主)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울학연구소가 지향하는 서울학(Seoul Studies)은 도시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서울의 장소, 사람, 문화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과정과 동력을 탐구하여 서울이 지니는 도시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역사, 문학, 도시, 건축, 조경 등 개별 분과학문의 성과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서울에 관한 종합적 인식'이라는 전체성 획득을 지향하고 있으며, 역사적 접근에 기반한 인문학과 도시건축을 기반한 장소학을 아우르는 [장소인문학]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즉 서울학은 역사 문학 철학 지리 사회 건축 도시 조경 등의 여러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조명하는 [융합학]이다.

■ 서울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서울학연구소의 위상

[서울학연구소]는 199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39조 (직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근거하여 시책연구소로서 서울시립대학교 내에 설치되었다.

한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992년에 서울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는데,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2012년 [서울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2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전시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관한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만들어진 도시역사박물관이다.

아울러 1949년에 설치된 [서울시사편찬위원회]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 전문자료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서울육백년사' 등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통사를 정리하는 연구기관으로, 2015년 [서울역사편찬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서울학연구소를 제외한 다른 세 기관은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임명하는 조직이다. 연구조직의 규모가 크고 예산도 안정적이나, 서울시의 정책기조에 따라 연구방향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비하여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어 규모는 작지만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고, 외부 상황에 흔들림 없이 학문으로서 서울학의 정체성을 정립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06년에 서울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널 ‘서울학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다.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서울에 대한 논문이 수록되는 학술지로 피인용지수가 높은 학술지널 중 하나이다. 2011년 교수신문에서 기획한 “대한민국유산 선정-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에서 인문분야의 대표적인 연구소로 선정되었다.

유산 명	해당 대학	선정 이유
국역 여지도서	전주대	지역에 거점을 둔 대학으로 집념 가득한 전통문화 유산의 현대적 번역 성과
남명학고문헌시스템	경상대	고문헌 DB구축을 통해 전국적인 공유 체계 수립
島嶼문화연구원	목포대	서남해 섬 문화를 인류학적으로 조사, 도서해양 연구의 선구적 업적 축적
생명과학의 메카	거국대	국내 축사학 농학 의생명과학 수의학의 학문 연구와 인재 양성 선두 주자
서울학연구소	서울시립대	'서울학'을 하나의 고유 학문으로 육성해가고 있으며, 도시문화 연구에 기여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	1957년 한국 최초의 대학부설연구소로 출범한 대표적 지역종합연구소
여성교육 시스템	이화여대	한국사회 자타가 인정하는 여성교육의 산실로, 각종 여성 전문 인력 육성
특수교육	대구대	한국 특수교육, 재활과학의 요람으로 점자도서관 등 장애인교육의 메카
포항방사광가속기	포스텍	물리, 화학, 재료과학, 의학 및 정보전자 연구의 기초
한국음식연구원	숙명여대	조선황실의 맥을 이어오는 국내 유일의 대학 부설 전통음식 연구기관
한한대사전	단국대	30년에 걸쳐 5만5천글자, 45만 단어 수록한 한자문화 유산의 집합지
LG연암문고	명지대	문화방송과 LG그룹의 '고서찾기' 운동 결과로 만들어진 한국학 유산
20여종 특수 외국어사전	한국의국어대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힌두어 등 특수 사전 편찬 통해 문화적 가교 역할

<교수신문 2011년 4월 27일 특별기획(‘대학의 유산, 한국의 미래다’ 13면에 선정됨)>

2. 서울학연구소의 연구활동

서울학 연구자의 저변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서울학 연구지원 은 연구소 설립 이래 해마다 실시하여 많은 저서와 연구논문을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서울학 연구 성과를 관련전문가 및 대중들과 소통하기 위해 국제심포지엄, 서울학심포지엄, 세미나, 정례발표회, 서울학 포럼 등 다양한 형식의 학술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연구저널, 연구총서, 교양총서, 미디어총서, 서울학 모노그래프 등의 형식으로 간행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88권에 달하는 서적을 발간하였다. 특히 연구저널인 <서울학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 이기도하다.

이외에도 서울학연구소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민문화대학을 운영하여 대중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울시나 자치구의 위탁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였던 대학특성화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학 모노그래프 발간’, ‘서울학 포럼 개최’, ‘서울학 논저 DB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소의 활동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학 연구지원

[서울학연구소]에서는 서울학 연구를 촉진하고 서울학 전문연구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공모를 통하여 소장학자들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서울에 관한 8개의 주제가 선정되는데, 하반기에 8명의 연구자들이 [서울학 정례발표회]를 통하여 한자리에 모여 논문을 발표한다. 학문분야를 서로 소통하고 연구방법론을 검증하는 자리가 되며, 무엇보다 서울학 연구자의 연구관계망을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발표된 논문은 연구재단의 정규논문 심사를 거쳐 [서울학연구]에 게재된다.

■ 연구지원 분야

서울학연구에 지원하는 연구논문의 분야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지원 분야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역사학 : 서울을 연구 테마로 하는 고고학 및 한국 고대사~근현대사
- ② 도시계획, 도시공학, 건축학, 조경(경관)학 : 조선시대~근현대 서울의 건축, 도시계획, 도시조직, 가로망 및 교통수단, 도시경관, 조경 등의 연구
- ③ 국문학 : 조선시대 시문학, 서울 방언, 근현대 서울을 소재로 한 문학 등의 연구
- ④ 사회학 : 서울의 가족, 신분, 인구, 사회조직 등의 연구
- ⑤ 음악, 미술 : 조선시대~근현대 서울에서 유행한 음악과 연희, 서울을 소재로 한 회화 작품 등의 연구
- ⑥ 민속학(인류학) : 서울지역의 민속, 통과 의례, 세시풍속 등의 연구
- ⑦ 지리학 : 조선시대 고지도, 근현대 서울 지도 및 지리 등의 연구
- ⑧ 도시행정학 : 조선시대~근현대 서울의 행정편제, 행정조직, 운영체제 등의 연구
- ⑨ 경제학 : 조선시대~근현대 서울의 재정, 상공인, 상공업, 경제조직, 경제 운영방식 등의 연구

2) 서울학 사료탐사 수행

탐사팀을 조직하여 국내외 산재한 서울 관련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고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총 40회 진행을 했고, 국내 29회, 국외(일본·중국·미국·러시아·유럽) 11회 진행해 왔다. 이후로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지만, 연구용역을 통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부수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고 있다.

3) 서울학 학술행사 개최

[서울학연구소]는 [역사도시 서울]을 주제로 매년 [서울학 심포지엄]을 개최해오고 있다. 2006년 ‘경복궁’, 2007년 ‘창덕궁’, 2008년 ‘경희궁’, 2009년 ‘경운궁(덕수궁)’, 2010년 ‘종묘와 사직’, 2011년 ‘서울한양도성(서울성곽)’ 등 서울을 상징하는 궁궐과 종묘사직과 성곽에 대하여 심포지엄을 진행해왔다. 최근 2017년에는 ‘1929년 조선박람회와 식민지도시 경성의 변화’를 통해 전근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심포지엄은 인문학과 장소학 연구자가 한자리에 모여 학문간의 소통을 통한 방식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심포지엄에 발표된 논문도 심사과정을 거쳐 [서울학연구]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해오고 있다.

4) 서울학 총서 발간

- 연구저널 _ 『서울학연구』 71호 발행(2018년 5월),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 연구총서 15권, 교양총서 7권, 사료총서 10권, 번역총서 3권, 미디어 총서 3권, 목록집, 색인집 2권, 8권, 기타 6권 등 총 122권을 발행해

오고 있다.

구 분	도 서 명	발행 시기
연구총서 (15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학 연구서설 2. 서울의 경관변화 3. 서울의 사회풍속사 4. 서울의 도시개발정책과 공간구조 5. 서울의 전통이해 6.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7. 서울상업사연구 8. 조선후기 서울의 사회와 생활 9. 1950년대 서울의 자본가 10. 조선후기의 수도방위체제 11. 주민 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현대사 12. 청계천 ; 시간,장소,사람 13. 종로 ; 시간,장소,사람 14. 남촌 ; 시간,장소,사람 15. 한국의 도성 ; 도성 조영의 전통 	<p>1994.12 1994.12 1995.12 1996.12 1997.10 1998.02 1998.02 1998.01 1998.01 1998.12 2000.03 2001.11 2002.03 2003.04 2003.11</p>
사료총서 (10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 편 2. 미국 편 3. 유럽 편 4. 규장각 편(1) 5. 대학도서관 및 박물관 편 6. 규장각 편(2) 7.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서 편 8. 일제하 서울의 公設市場 편 9. 조선후기 군영관련자료 I 10. 조선후기 군영관련자료 II 	<p>1995.01 1995.01 1995.01 1995.01 1995.01 1995.01 1995.01 1997.01 2005.09 2005.09</p>
번역총서 (3책)	<p>궁궐지 1 궁궐지 2 꼬레아 꼬레아니</p>	<p>1994.12 1996.02 1996.01</p>

미디어총서 (3책)	그림으로 본 옛 서울 서울의 옛모습 서울의 옛지도	1995.02 1995.02 1995.02	
설 화 집	옛날 옛적 서울에	1994.12	
시민대학 교재	잃어버린 서울 다시 찾는 서울	1994.12	
색인. 목록집 (10책)	서울학 논저목록 서울학 문헌목록 조선왕조실록 중 서울관련 기사색인 일제하 조선일보 중 서울관련 기사색인1 일제하 조선일보 중 서울관련 기사색인2 매일신보 중 서울관련 기사색인 비변사등록 중 서울관련 기사색인 일성록 중 서울관련 기사색인 일제하 잡지중 서울관련 기사색인 추안급국안·포도청등록 중 서울관련 기사색인	1994.12 1994.12 1996.09 1998.12 1998.12 2000.12 2001.12 2001.12 2006.01 2006.12	
도시지역학 총서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의 대도시로의 성장과정 비교연구1 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의 대도시로의 성장과정 비교연구2	2006.05 2006.05	
서울학 모노그래프	한강의 섬 보이는 용산, 보이지 않는 용산 청계천, 청계고가를 기억하며	2009.05 2009.10 2009.03	
공 저	시정연	서울, 20세기 100년의 사진기록	2000
	시정연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2001
집필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서울특별시)	2002.12	

장소인문학총서	한양의 탄생	2015.07
---------	--------	---------

5) 서울시립대학교 교양강좌 수업 운영 _ ‘수도로 보는 동아시아 문명

2012년도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학부 수업에 교양교과목을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1학기 개설을 하였으나 수강생의 요구에 2016년도부터는 매학기 개설하였으며, 2018년도 2학기부터는 수강생을 늘려 대형 강좌로 운영할 예정에 있다.

이 강좌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한자문화권을 중심으로 각국의 역사와 문화, 수도로서의 위상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배양함과 함께 글로벌한 시대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각 나라의 역사문화인식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6) 대중강연 기획 및 운영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한 ‘서울역사박물관 대학’이라는 대중 강연을 기획·진행했으며, 2017년도부터는 ‘토요서울학’이라는 대중강좌를 기획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일부 강연을 맡아서 대중 강좌를 기획 운영하고 있다.

강연의 주제는 서울학연구소가 그동안 진행해온 주요 연구실적을 일반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7)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운영

서울학연구소는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2010년 9월부터 「동아시아 각국 수도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동아시아 수도에 대한 연구논문을 생산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가고 있다. 아울러 서울학의 외연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8) 학술연구용역 수행

서울시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역사문화 콘텐츠, 문화재, 도시계획, 대중강연 등과 관련된 일로 위탁연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3. 본격적인 지역학 연구의 시작 _ 한국지역학 포럼²⁾

‘서울학을 표방한 서울학연구소의 설립 이후 현실 정책연구와 향토사 연구에 머물고 있던 서울 연구는 그 질과 양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서울학연구소의 설립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울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 지역학 연구기관이 잇달아 설립되었으며, 중국에서도 서울학연구소를 모방하여 북경연합대학 내에 북경학연구소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서울학연구소는 도시 서울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소에서 더 나아가 지역학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지역

2) 명칭에 있어서 ‘지역학’으로 할지 ‘지방학’으로 할지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으나, 임시적으로 지역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도시역사문화의 가치와 중요성,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활동을 통해 한국 지역문화 역사의 중요성과 학술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 역대 한국지역학포럼 주제

차수 (시기)	포럼 주제	주최
01차 : 2012년 05월 03일	전국 지역학연구소의 과거와 현재, 미래	인천 + 서울
02차 : 2012년 12월 27일	지역학연구와 도시정체성	대구 + 서울
03차 : 2013년 06월 05일	지역의 정신과 가치 발견	부산 + 서울
04차 : 2013년 11월 01일	지역학과 지역문화콘텐츠	전주 + 서울
05차 : 2014년 07월 03-04일	지역학 자료의 기록화와 보존·활용	제주 + 서울
06차 : 2014년 12월 12-13일	성곽도시, 도시마을	서울 + 서울
07차 : 2015년 09월 11-12일	각 지역의 민속·도시문화	경기 + 서울
08차 : 2015년 12월 18-19일	도시의 근대, 근대의 유산	울산 + 서울
09차 : 2016년 06월 24-25일	지역학과 시민참여	대구 + 서울
10차 : 2016년 10월 07-08일	지역학과 마을이야기	제주 + 서울
11차 : 2017년 6월	지역학 아카이브	인천 + 서울

23-24일	구축 방법과 실제	
12차 : 2017년 10월 20-21일	지역학 연구기관의 운영방향	충북 + 서울
13차 : 2018년 1월 10-11일	강원학연구센터 개소식 및 기념포럼	강원 + 서울
14차 : 2018년 5월 24-25일	지역문화와 교통	익산
15차 : 2018년 10월 31일(예정)	미정	부산
16차 : 2019년 4月中(예정)	미정	전주

■ 현재 한국지역학 포럼에 참여하는 지역학 관련단체는 예산의 배분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 (1) 지역발전연구원 부설 연구기관
- (2) 대학교의 부설 연구기관
- (3) 문화재단 부설 연구기관 등

■ 지역학기관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그 기반이 취약한 실정임

- (1) 안정된 연구인력 및 시설, 공간의 부재
- (2) 연구활동을 위한 정해진 조직과 예산이 없음
- (3) 지역학 학술대회 및 포럼 등의 활동은 중앙정부에서 지역학 포럼 등의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는 점에서, 한국지역학 기관들에 대한 예산지원 활동과 연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음으로 시도 또는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한 기반 조성의 시급성을 요함

- (4) 해외, 예로 북경과 동경, 교토 등의 지역연구 관련기관들과의 협력 세미나 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를 뒷받침 할 만한 기관차원의 지원이 없음

■ 한국지역학 포럼의 운영에 대한 소견

첫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각 지역학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문화의 아젠다와 정체성을 실현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핵심기관으로 자리 잡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각 지역학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될 때는 낯알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국 전체의 각 지역학 기관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지역문화에 대해 실질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고 할 때는 연합적인 성격의 지역연구 기관처럼 보여서 외부적인 시선에서는 커다란 연구집단으로 인식할 수 있을 수 있음. 또한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나아가 실질적인 공동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수도 있음. 이를 통해 더욱 지역학 연구기관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됨.

둘째, 지역학 연구기관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역학 운영지침과 같은 정관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공동의 규칙을 통해 하나라는 연합기관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음.

셋째, 적극적으로 지역학 연구기관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지자체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지역학 연구기관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넷째, 지역학 연구기관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하는

신진학자들을 육성하여 지역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거시적인 학문이 아닌 지역적인 학문에 관심을 두는 학자의 육성을 통해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나아가 지역문화콘텐츠를 확립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음.

다섯째, 각 지역학 기관들은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더욱 친밀한 연합체계를 갖는 지역학 학문기관으로 자리잡을 필요가 있음. 한국의 지역문화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을 때 각 지역의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인 예산지원과 자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음.

<부록>

1) 서울학연구소 주요 연혁

- 1993년 6월 : 서울학연구소 창립(본관 8층, 초대 소장: 안두순)
- 1993년 11월 : <서울의 옛모습 모형제작 기초연구 용역> 수탁
- 1993년 11월 : 서울학 심포지엄 개최(이후 매년 1회 개최)
- 1995년 9월 : 이준희 2대 소장 취임
- 1997년 9월 : 강홍빈 3대 소장 취임
- 1999년 9월 : 최기수 4대 소장 취임
- 2001년 10월 : 홍대형 5대 소장 취임
- 2003년 9월 : 이우태 6대 소장 취임
- 2005년 2월 : 서울시로부터 서울정책인 대상 수상
- 2005년 7월 : 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 대학특성화사업(1차년도) 참여
- 2005년 9월 : 이익주 7대 소장 취임
- 2006년 9월 : 학술진흥재단(주관) '인문주간' 사업 참여
- 2007년 2월 : 송인호 8대 소장 취임
- 2007년 7월 : 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 대학특성화사업(3차년도) 참여
- 2010년 9월 :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선정
- 2016년 6월 : 이익주 9대 소장 취임

2) 서울학연구소 조직

- 2개의 위원회, 3개의 부서로 편성
- 소장 : 1인. 서울시립대 교수 가운데 총장 임명
- 부장 : 3인. 서울시립대 교수 가운데 소장 추천으로 총장 임명
(학술기획부, 자료탐사부, 학술교류부 각 1인)
- 연구운영위원회 : 15인 내외. 교내외 서울학 관련자로 구성. 연구소 운영방식 등 자문
- 편집위원회 : 11인. 교내외 서울학 전문가로 구성. 연구지원 및 게재논문 심사 등 담당

3) 서울학연구소 인력구성

- 수석연구원 : 1인. 연구소 업무 총괄
- 연구원 : 1인. 행정사무 담당

- 위촉연구원 : 학술연구 등 프로젝트 협력 연구
- 중점연구소 : 연구재단 중점연구소 등 연구교수 및 보조원 인력 7인 (2019년 8월 종료)

「지역학을 연 서울학의 어제와 오늘」에 대한 토론문

김양식(충북학연구소장)

최근 세계화의 영향으로 지구촌시대가 열리면서 민족이 해체되고 국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지역이 곧 세계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구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나라, 다양한 문화,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소통하고 있다.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사회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 지역이다. 20세기 지역은 민족과 국가의 하위 개념이자 종속된 존재였다. 이제는 지역이 중심 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어느 곳에 있든, 누구와 소통하든, 그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터하고 있는 특정 지역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의 무대인 지역에 두 발을 딛고 있으며, 일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있다. 그런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역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지역 중심, 지역민 주체의 학문적인 답을 찾고자 한다. 그것이 곧 지역학이다. 지역학은 지역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자, 세계와 소통하는 문이다. 예산학도 그런 담론의 하나이다.

특히 최근 그동안의 지방자치를 토대로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학문적 기반으로 지역학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산학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고무

적이라 할 수 있다.

지역학의 붐을 연 것은 오늘 성공사례로 발표한 서울학연구소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학연구소의 존재와 그 연구성과는 큰 의미가 있다.

문제는 지역학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 주체라 따라 지역학연구소의 연구방법론이나 문제의식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현재 한국 지역학연구소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대학 부설로 설립·운영되는 경우, 지자체 연구기관의 부설로 설립·운영되는 경우, 민간에서 설립·운영되는 경우 등 다양하고 각각의 장단점과 특성이 있다.

따라서 서울학연구소는 대학 부설로 설립·운영할 경우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학은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도 달리 접근해야 한다. 광역은 상상의 지역공동체일 수 있겠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생활공동체이며 좀 더 시민사회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연구 기반도 약하다. 따라서 광역인 경우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학연구소의 설립·운영방식은 물론 사업 설계도 다르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학은 5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역 중심, 둘째, 주민 중심, 셋째, 지역 가치 발굴, 넷째, 지역 가치 창조, 다섯째, 세계(다른 지역)와의 소통 등이다. 문제는 이들 원칙들을 어떻게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그것을 펼칠 수 있는 지역학 기구를 설립·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는 바, 예산학 역시 이 지점에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기초자치단체인 예산군의 지역여건에 맞는 예산학의 방향과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¹⁾

■ 예산학이 가야 할 길

1. 인문학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역학은 학제간 총체적 접근을 통한 다학문간의 융합을 꾀하되, 지역과 지역민 중심의 장기지속적이며 주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은 종합학문으로, 순수학문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적인 실천학문이 되어야 한다.

지역학에 대한 사전적 정의 역시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역학 연구는 단순히 지역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활용 가능한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은 목적지향성을 가진다.

현재 국내 각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학 개념은 목적과 대상 및 방법론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지역 정체성 정립, 지역 역사문화 연구, 지역 발전,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학제간 종합 연구 등과 같은 지역학의 목적이나 방법론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학에 대한 여러 정의는 비록 다루는 지역이 다를지라도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음.

1) 이 글은 줄저 『청주학 이야기』(해남, 2017)에 게재된 것을 예산학 입장에서 재구성하였다.

- 지역학은 지역, 지역민을 주체로 한다.
- 지역학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지역에 대한 학제간의 총체적 접근을 요구한다.
- 지역학은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지역학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실천학이다.
- 지역학은 특정 지역의 공간과 인간, 그리고 시간을 다루는 연구이다.

다만, 지역학은 학제간 종합연구를 지향하면서도 어느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느냐는 지역에 따라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학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룰지는 그에 대한 지역과 지역민의 공감 있어야 한다.

다만, 지역학은 지역에 대한 학제간 종합연구를 지향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현실적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 만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문화 연구에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문제는 예산과 전문인력의 한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학제간 종합연구를 추구할 경우 연구결과와 기대효과가 부정적이다. 따라서 지역학은 학제간 종합연구를 지향하되, 지역 안팎의 여건을 고려하여 핵심 연구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면서 외연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학 연구는 지역성(locality)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역성이란 지역이라는 공간에 온축된 특질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의 주체는 지역에 터하고 사는 인간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는 지역이 성립된 일련의 과정과 그 지역에 터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앎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역학 연구는 비록 역사학·정치학·경제학·지리학 등 학제간 다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인문학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지역학의 특성상 사회학, 정치학, 생태환경분야로도 늘 시선을 열어놓아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학이 갖는 실천적 가치는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세기 지역 개발은 지역 주민이 늘 객체가 되어 왔다. 이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을 만든 주체는 주민이며, 그래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주민이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그 공과를 책임질 사람도 주민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은 철저히 지역 주민 중심의 지역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학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공동 이익과 삶의 질 제고에 있는 만큼 지역에서 살아오고 살아갈 인간 중심의 인문적 가치를 탐구하고 심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정신적 풍요와 심리적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역사적 경험을 추찰하고 오래된 인문 가치를 찾아내 상상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성을 탐구하는 지역인문학은 지역이라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 그 속에 투영되어 있는 인간의 본질문제를 규명하는 연구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이 당면한 현상적인 문제는 정치경제학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접근은 불가능하다. 지역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학과 철학·문학을 기초로 한 인문학적 접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는 이미 여러 지역에서 시도된 지역학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학은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융합학문’ 방향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산학은 인문학 중심의 융합연구를 추구하되, 공간과 시간의 관계성 탐구, 지역사 속에서 인간 본성과 존재방식 및 삶의 원리 발견, 지역성(개별성과 정체성·장소성) 성찰, 지역의 형성과 기억 및 재구조화 연구, 지역공동체 추구, 지역의 공동善과 정신가치 구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즉, 예산학은 예산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분과학문의 접근과 학제간 연구를 지향하면서, 예산을 단위로 한 공간과 인간·시간에 대한 상호유

기적인 인문학적 연구와 문화적 성찰,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산다움과 가치’ 재발견, 지역공동체 구축과 공공가치 실현 등은 예산학이 앞으로 과학적인 자기정체성을 확보해가는 기반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지역학은 디지털 지역학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런 만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연계된 디지털 인문학을 추구해야 한다.

2.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의 장소성과 정체성이 탐구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지역학의 핵심 과제의 하나는 지역내 장소성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일이다.

지역 장소성은 특정 장소를 상징하는 유무형의 기억이나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지역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지역의 장소성과 정체성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지역학에서의 장소와 장소성 탐구는 잠재된 장소의 가치를 찾아내 복원하고 유의미한 지역의 장소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다. 지역학에서의 장소 재발견은 곧 지역의 재발견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장소성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정체성을 보다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지역학에서의 장소성과 정체성 탐구는 일차적으로 지역성을 해명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에는 지역에 대한 현재성과 실용성을 위한 것이므로 지역문화운동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런 만큼 지역학 탐구에 어떤 형태로든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예산학 역시 지역정체성 탐구가 지속적인 지역문화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체성은 상품처럼 이미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정체성은 현재적 관심

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유산이며 미래의 지향이기도 하다. 정체성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정적이고 비판 극복되어야 할 정체성 요소도 많다. 그런 면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은 기존의 지역정체성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문화운동 차원에서 장기지속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그것은 정체성을 찾고, 알고, 가꾸어 지역의 새로운 '삶의 결'을 만들어내는 일로써, 삶의 질을 높이려는 학술운동이자 문화운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할 때 예산학은 지역 주민에 뿌리내린 연구, 지역 주민을 위한 학문,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탐구가 가능할 것이다.

지역학이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지역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지역의 여러 현실적인 여건과 지향성을 찾아내 그에 기초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발굴하고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역사적인 정체성 중심으로 접근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정체성 탐구를 하는 것으로, 기존의 '단편 정체성'에서 '열린 정체성'으로의 전환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지역학이 장래를 내다보는 '방향성의 지혜'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지역학의 시점이 과거·현재에서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옮겨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학은 '미래학'이 되어야 한다.

지역성(장소성·정체성 등) 탐구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경험과 그것에 토대를 둔 현재성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결과물이자 그 과정이다. 그 때문에 지역성 탐구는 과거 중심적이거나 현재 고착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역성 탐구의 궁극적 목적은 더 나은 지역을 만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는 만큼, 과거에 형성된 현재 진행형의 지역성은 미래 가치와 결합되어야 한다. 그러할 때 지역성 탐구가 지속가능성과 가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 지향시 유의할 점은 지역내 ‘같음’만 찾는 점이다. 지역내 다양한 요소의 중첩된 결과로 나타나는 공통분모가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정체성 탐구는 지역내 다양성과 차이점을 동시에 주목해야 한다. 예산학은 ‘예산’라는 상상의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장소가 동시에 공존하는 집합개념이다. 따라서 예산 정체성 역시 예산단위의 정체성을 찾되, 예산지역내 여러 장소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균형 있게 접근해야 한다.

3. 예산학의 생명은 작은 장소와 현장에 있다

한 지역은 여러 소단위 지역과 장소의 집합체이자 그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소단위 지역과 장소 하나하나가 시간과 공간의 매트릭스 위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장소성과 기억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장소성과 기억들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해체·소멸하면서 재생되는 유기체이다. 그런 만큼 지역 전체의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내 여러 시간과 공간의 결정체를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파악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가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모여 공통의 집약된 지역성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

지역내 지역과 장소는 모두 각자 시공간의 매트릭스 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물질적 또는 비물질적, 아니면 유형·무형의 요소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전설이 있는 바위, 길 모퉁이 오랜 풍상을 이겨내고 서 있는 나무, 지금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마을 어귀 정자, 빛 바랜 사진들, 세월로 움푹 파인 두 눈을 가진 어르신들, 어느 옛 집에서 먼지를 덮고 있는 서류들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소중한 지역학의 원소소이자 그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무언의 텍스트들이다. 이런 것들은 거대 담론에서는 하찮은 요소들이지만, 지역학에서는 하나하나에서 의

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예산학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요소들을 주목하고 그것에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장소 안에 숨겨진 시간의 숨결과 이야기를 찾아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예산학을 연역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귀납적이어야 한다. 국가 또는 민족 단위의 담론을 지역에서 찾아내고자 해서는 안되며, 특정 자료나 이론을 지역에 적용하고 검증하고자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지역내 여러 점과 선, 그리고 면으로 이루어진 지역요소에서 시간과 기억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고, 그를 통해 지역 안팎의 거대 담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담론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 밖에서 물밑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지식과 문화와 이념의 물결을 비판적으로 소화하고 지역 중심의 주체적 접근이 가능하다.

4.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역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술 연구가 아니라, 지역정체성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예산학의 중심에 늘 지역 주민이 있어야 한다.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 주민이 누리는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하는 만큼, 지역민의 참여와 향유 및 지역민 주도의 지역학 조사연구체계 확립이 주요한 과제임.

그러므로 예산학 주제 선정은 물론 조사·연구과정에 지역내 다양한 현장 전문가를 참여시킬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지역민 주도로 예산지역내 산재한 여러 지역학 관련 지적 자원(이야기, 사진, 문서, 유적 등)들을 조사·수집하고 그것을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연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예산학 참여주체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이지만, 좀더 조직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협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시민단체는 전문가들보다 더 주체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역문제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예산시, 예산학 관련 연구기관,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시스템 구축은 예산학을 거버넌스체제로 접근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예산학 관련 기관·단체를 통합하여 네트워크체제를 구축하고 협력 연구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를 통해 예산학이 예산의 학술공동체로서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예산학의 주체가 지역민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학에 대한 인식과 방법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학 주체가 전문연구자 중심에서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는 구조로, 지역학 범위가 조사·연구에서 교육·홍보·활용 등으로 확대되고 대상도 지역사회·문화경관·지리배경·예술창작 등으로 넓혀져야 한다. 예산학의 시점도 과거와 현재 중심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학 생산물은 지역민이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예산학의 생명력을 담보할 수 있고, 지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하는 선순환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를 위해 예산학 설계과정에서 지역언론과의 공동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통해 예산학의 시작과 끝이 언론매체를 통해 수시로 지역민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단적의 성공사례로 충북환경단체와 KBS 라디오가 공동기획한 '미호천탐사'는 매주 탐사 결과가 방송되고 KBS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매우 큰 홍보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충북 지역에서 미호천에 적극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미호천이 단순히 충북을 지나는 하천의 지위에서, 충북의 주요한 장소와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니, 그 성과는 매우 큰 것이다.

예산학 간행물 배포도 지역신문에 공개, 신청을 받아 추천해서 배포할 경우 간행물 소개 겸 간접방식으로 지역민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

예산학이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향유하는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학이 예산시의 평생학습교육분야로 자리잡아야 한다. 지역 전문가를 양성하며, 지역민이 예산학을 향유할 수 있는 매체와 공간,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일본 처럼 예산학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실제 최근 눈에 띄는 전국의 지역학 연구 동향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학을 진흥하고 있는 점이다. 그를 위해 여러 지역에서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학 강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기관에서 지역학 강좌를 열고 있으며, 안산학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주도하여 시민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의 도쿄학은 2013년까지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142회의 포럼을 개최하였고, 연 5회는 연구포럼, 연 1회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포럼을 진행하였다. 또한 일본 아오모리학은 학자들 간의 교류 뿐 아니라, 아오모리학을 향유하는 주민들이 '학우회'를 구성하여 교류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제도를 통해 아오모리학을 주민의 필수 학습과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 예산학에서 해야 할 과제

1. 예산학아카이브 구축

지역학의 기초토대는 지역에서 생산된 유무형의 다양한 자료이다. 특히 최근 들어와 급격한 인구 노령화와 주거 이동으로, 지역자료가 유실되

거나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런 만큼 서둘러 연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학 관련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집적하고 그것을 D/B화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허브 역할을 맡아, 예산학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모델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공주학 사례처럼 ‘예산아키비스트’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산학 기록물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예산학 자료를 조사·수집·정리하는 지역주민과의 협력형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주대학교 부설 공주학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주 시민기록연구자 양성프로그램은 참여형 아카이브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주 일반 시민이 기록연구자(아키비스트)가 되어 함께 공주 자료를 찾는 프로그램이다. 일정한 양성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공주의 일상을 기록하다’ 블로그를 통해 현재의 기록을 수집하는 사업이다.

예산학 자료 아카이브 구축은 궁극적으로 지역 내외 연구자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제공으로 환류되어야 하며, 그를 통해 예산학이 탄력을 받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의 연속성을 이어주는 자료 생산과 축적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산학 아카이브 구축은 디지털 아카이브 형태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예산 관련 자료를 디지털로 아카이빙한 뒤 큐레이션하면, 그것이 곧 디지털 예산학이자 예산 인문학의 기반이 될 수 있다.

특히 예산학 디지털 아카이브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으로 지역민이 소장 자료를 올려 상호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민 참여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예산학 시민 전문가 양성

예산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전문인력이 많아야 한다. 학술적인 전문인력은 오랜 시간 제도권 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만큼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내 현장 전문가들을 적극 지역학 연구자로 끌어들이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서 오래 전승되어 온 비물질유산이나 기억과 관습 등은 전문연구자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에게 더욱 체화되어 있다. 또한 지역문제 역시 전문연구자보다 현장 활동가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 역시 잠재적으로 현장 활동가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예산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시민운동가·향토사학자·문화관광해설사 등)이 적극적으로 예산학에 참여해야 한다.

3. 예산학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사업 추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학은 학제간 융합학문인 데다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지역(민)은 지역학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학의 주체이다. 지역학은 동기부터 결과가 지역 내부의 동력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역학의 주체와 목적이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학 관련 기관·단체 및 시민층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것은 예산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다자간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네트워크사업으로는 예산학 공동조사, 예산학 한마당 축제, 예산학 네트워크 파티 등이 있을 수 있다.

4. 예산 인문정신 정립

지역학에서 올곧은 지역의 정신상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역학이 지역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지역의 사회문제를 치유하는데 일정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학 역시 예산의 인문정신을 키워나가는데 일조해야 한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시민 행복권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신적 뒷받침이 될 것이다.

특히 예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 및 청소년 자살률이 높고 빈부 및 세대간의 격차로 계급적·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빠른 노령화로 사회적 치유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적 치유방안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정신적 치유인데, 그 대안으로 지역의 인문정신문화를 진작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정신적 안정과 삶의 평온함을 모색하는 것임.

이 때문에 정부도 ‘인성교육진흥법’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법’을 제정하여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인문정신을 진흥하여 건강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 모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되는 지역학의 특성과 사회적 요청 및 정책 추세로 볼 때, 예산학은 예산의 정신유산을 재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지역민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 예산학은 지역 역사인물을 재조명하고 문화자원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하여 문화예술치유콘텐츠를 개발하고 행복했던 과거의 기억을 현재화하여 삶의 안식처, 미래의 동지로 만들어야 한다.

5. 예산 고유의 장소 및 자원 발굴과 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은 지역내 수많은 장소가 중첩되어 이루어진다. 그런 장소는 끊임 없이 생성되고 변화되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역민은 특정 장소와 장소의 기억만을 가지고 삶을 영위한다. 그것은 삶의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지역의 질곡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장소를 재발견하고 지역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 고유의 장소를 발굴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같은 장소는 역사적 사건과 문화유산의 장소일 수도 있고, 이미 사라진 기억 속 장소일 수도 있고, 왜곡된 장소일 수도 있고, 새로 생성되는 장소인 경우도 있다. 이런 장소를 재발견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그것이 정체성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예산학 핵심과제이기도 하다.

아울러 지역학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발굴한 장소나 문화원형, 지역의 상징체계 등이 궁극적으로 가치를 지니고 위해서는 그것이 지역민에게 전달되고 공감하며 지역을 재발견하고 창조할 수 있는 선순환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학과 지역민의 매개고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최근 콘텐츠 발굴 특징은 3S 융복합 형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3S란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스페이스텔링(space telling), 스피릿텔링(spirit telling), 즉, 이야기와 공간(장소), 그리고 감성(정신)이 융복합되는 형태의 콘텐츠이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가 장소성을 확보하면서 그 의미를 확장하고 그것이 문화예술적으로 전개됨으로써 감흥을 자극하는 미래지향적인 콘텐츠이다. 따라서 예산학에서는 의미있는 장소와 장소내 문화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그것을 문화원형으로 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할 때 예산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차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다운 생산적 정체성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콘텐츠의 성패는 원형 콘텐츠의 '내용과 질, 그리고 가치'에 달려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획·개발하는 문화기획자나 문화콘텐츠

개발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이 예산학회는 물론 협력형 네트워크사업에 참여하여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문화예술로 꽃피우는 예산학

예산학의 꽃은 지역의 문화와 예술이다. 실제 축제와 같은 지역문화예술행사와 미술 전시, 공연예술의 소재는 지역 문화자원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지역 문화기획자나 예술인은 지역문화원형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해 예술콘텐츠 기획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학과 창작예술이 접맥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콘텐츠는 문화의 시대 예산의 지역문화와 문화상징 등을 지역민에게 전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수단이다. 그러므로 예산의 지역문화에 대한 공감을 확장하고 그것을 계승 발전시키는 수단으로 문화예술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학과 지역문화예술행사 및 전시·공연 등이 결합되어야 한다. 그래야 시너지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 그를 위해서는 예산학 네트워크망에 지역내 축제 기획자, 문화 기획자, 예술인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7. 예산학 평생학습기반 구축

예산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위해서는 지역민이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공감하며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 예산학이 충분히 지역민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예산학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예산지역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에 '예산학 강좌'를 개설하고 조직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강사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학의 내발전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민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학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지역학 학습 동아리, 공부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산학연구원은 지역학 학습 동아리 매개자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를 위해 동아리 조직과 강사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안산학 시민대학은 시민단체가 안산학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원은 2007년에 안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안산학 관련 강좌의 개발과 운영 등을 목표로 ‘안산을 알아야 안산이 발전한다’라는 슬로건 속에 설립되었는데, 2007년부터 안산학지도자과정을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안산학 경진대회(도전 안산벨)를 개최하였다. 특히 매년 안산학 시민대학이 열리고 있다. 시민대학 수료자 중심으로 동문회가 구성되어, 안산학의 지속가능한 인적 토대와 후원세력이 되고 있다.

8. 타 지역학과의 교류사업 추진

현재 지자체별로 많은 지역학연구소가 설립되어 있다. 이들 연구소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관련 전문인력도 증가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외 지역환경이 급변하고 새로운 지역문제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타 지역학과의 적극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지역학의 활성화는 세계화와 맞물려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미 1980년대부터 지역학으로 ‘地元學’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만들기를 위한 창조적 학문기반으로 활용하여 성공한 예가 많으며, 최근에는 지역을 넘어 ‘地域相生學’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지역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벤처마킹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국내외 지역학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할 때 예산학의 성과가 외부에 적극 공개되어 공유하고 ‘비판과 공감, ‘같음과 다름’을 통해 예산학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제2주제]

지속 가능한 예산학으로의 발전 모색

용인학연구소의 운영 실태와 과제 (김장환)

공주학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와 지역학적 과제 (송충기)

예산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신익산)



용인학연구소의 운영 실태와 과제

김장환(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 들어가는 말

지역학은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문, 지리, 환경 등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학문 분야이다. 기존의 역사, 문화 등의 모든 학문이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인 구조로 인해 지역은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즉 지역의 역사문화가 지역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다고 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학의 체계적인 정립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지역민들 스스로를 역사문화의 행위자, 즉 역사문화의 주체로서 그 중심에 놓고 새롭게 구성해 나가는 학문이 지역학인 것이다.

용인문화원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역학 정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가 마침내 2009년 ‘용인학’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기존의 향토문화 연구소를 용인학연구소로 개칭하는 한편 2010년부터 관내 소재 6개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하는데 깊이 관여해 왔다.

또한 용인학을 대학 강단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군인, 나아가 기업체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방 통행식 용인학이 아니라 ‘소통으로서의 용인학’을 지향한다는 기초

로 전문 연구위원을 적극 영입하고 시민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용인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용인문화원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으로서의 용인학’의 운영실태를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2. 용인학연구소 개설

용인문화원은 그동안 지역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전통문화의 교류 및 사회교육 활동 등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중심에서 용인의 발전과 더불어 지역문화 창달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 때문에 용인지역의 독자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오면서 문화관광부로 부터 우수 문화원이라는 자랑스런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용인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서면서 수도권 중심도시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는 이점으로 에버랜드, 골프장 등 각종 위락시설이 집중되고 있어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구의 80%가 외지에서 유입되었다는 점과 농업 중심의 동부지역과 도시화된 서부지역의 정서적 괴리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은 용인이라는 지역사회의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장애 요인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오랫동안 지역사회 정신문화의 중심이 되어온 문화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원의 기능도 지금까지의 관행처럼 운영해 오던 문화원 자체 사업과 전통문화 연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와 더불어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역문화 운

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절실한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용인문화원은 지역 문화자산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인식하되 그 안에 안주하기 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타 지역 문화에 대한 열린 소통과 교류의 자세로 좋은 아이템을 수용하고 이를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1994년 개설된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향토문화연구소는 지역의 향토사 연구를 통해 사료의 수집과 보존, 각종 간행물의 발간 등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용인시의 인구가 급증하고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경제, 지리,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도시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역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소의 주 기능인 전통문화 창달의 범주를 확대하여 지역의 개성과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역발전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소로 거듭 나야 한다는 인식하에 2010년 용인향토문화연구소를 용인학연구소로 개칭하여 운영 체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용인학연구소에서는 오랫동안 향토문화 연구 활동을 통해 집적된 자료와 정보를 기초로 용인학의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원로들의 증언을 통해 용인의 근현대사를 재정립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대별 구술생애사를 발간하고 있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 도시화된 서부지역과 농촌사회인 동부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 및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 활동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향토 사학자 및 학계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으로 적극 영입하고 있다. 용인학연구소에는 현재 연구소장을 비롯하여 20여 명의 연구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상근 직원은 2명이다.

3. 관내 6개 대학 용인학 강좌 개설

인구 100만을 내다보고 있는 용인시는 수도권 중심 도시로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10여개의 대학이 소재하고 있으나 용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시 정체성 확립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외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 정체성 내지 도시 브랜드 이미지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점은 용인시의 오랜 숙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9년 한국외대 임영상 교수가 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천안학을 소개하며 용인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인학을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강남대와 한국외대 2개 대학이 2010년 용인시 재정 지원을 통해 용인학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고, 이듬해인 2011년에는 명지대학교와 용인대학교, 단국대학교가, 그리고 2012년에는 송담대학교에서 추가로 개설되어 6개 대학에서 강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학에 용인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관광 등을 소개하고 연구함으로써 용인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우리 고장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용인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개설하게 된 것이다.

사실 용인시는 최근 20여 년 동안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였고,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액이나 지역 총생산 등 외형적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내적 성숙이 그에

미치지 못하여 능동적인 도시정체성 형성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난개발’이나 ‘교통체증’ 등 부정적 이미지가 집중 부각되어 오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시책 추진 과정에서의 동력 감소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었다. 용인학의 개설 운영은 이와 같은 상황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것이다. 용인시 소재 대학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과 역량을 용인시의 발전 동력으로 끌어들이고, 시민과 대학생들에게 용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는 방법을 용인학에서 찾고자 했던 것이다.

현재 각 대학의 용인학 강좌는 자체 강사의 수업과 외부강사의 특강, 그리고 현장답사로 구성되며, 많은 학생이 수강할 수 있도록 평가는 pass/fail로 이루어져 60%이상 출석하면 pass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부강사 특강은 16주 수업 중 10회에 걸쳐 이루어진다. 용인지역 유명인사 내지 용인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용인의 문화, 역사, 경제, 관광 등 용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현장답사는 용인지역의 문화유적지 탐방이나 포은문화제, 처인성문화제 등 행사장 참여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용인학은 교양과목으로 2학점이며 개설에 따른 모든 비용(12,000천원)은 용인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강 인원은 40명에서 120명까지 학교마다 차이가 있고 매 학기가 끝나면 6개 대학의 주관 교수들이 모여 평가회를 갖는다.

용인학 강좌 개설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는 현재 용인시 정책기획과로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개설 대학에 학기별로 배분하고, 학사 운영에 따른 외부 강사 및 프로그램 지원은 용인문화원과 용인발전연구센터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2016년 강남대에 설치되었던 용인발전연구센터가 폐지됨으로써 그 전반적인 운영권을 용인문화원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용인학의 학술적 기능의 확장을 위해서는 문화원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용인학을 개설하고 있는 6개 대학 중 단국대와 한국외대의 강의 일정을 소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학년 1학기 강의 일정표〉

과목명	용인학	개설학부	전학과	수강인원	50
이수구분	1학기	개설학년	전학년	학점(시간)	2(2)
담당교수	임영상 외	강의시간	월요일 15:30~17:20 /인문관 2201호실		

주차	강의내용	담 당 교 수			비고
		성명	소속	직책	
1주 (2/29)	용인학 강좌 소개 (공동 주관교수 소개)	임영상	주관교수(인문대)	교수	
2주 (3/7)	용인의 역사문화자원과 활용1 용인의 여성인물: 사주당 이씨	박수현	이사주당기념사업회	회장	
3주 (3/14)	용인의 역사문화자원과 활용2 용인의 서원: 총렬서원과 심곡서원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	
4주 (3/21)	용인의 역사문화자원과 활용3 용의의 옛길: 영남길과 수여선	강진갑	경기대	교수	
5주 (3/28)	용인문화답사(3/26일 토요일 수업)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현장학습
6주 (4/4)	특강1: 용인의 지역문화축제 - 포은문화제와 처인성문화제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7주 (4/11)	특강2: 포은문화제와 스토리텔링	윤유석	(사)역사문화콘텐츠연구원	선임연구원	
8주 (4/18)	중간평가	임영상	주관교수(인문대)	교수	

9주 (4/25)	포은문화제 현장수업 (행사참석 4/23일)	주 동 완	한국외대 문화콘텐츠 전공	외래교 수	행사 참여
10주 (5/2)	원도심 용인과 지역 활성화1 용인의 역사(새마을운동과 용인)	이 종 구	용인학연구소	소 장	
11주 (5/9)	용인시청 방문(시장 특강)	정 찬 민	용인시	시 장	
12주 (5/16)	원도심 용인과 지역활성화2 용인의 전통시장-김량장 중심으로	최 명 환	한국외대 문화콘텐츠 전공	외래교 수	
13주 (5/23)	원도심 용인과 지역활성화3 용인의 원도심과 예교뮤지엄	주 동 완	한국외대 문화콘텐츠 전공	외래교 수	
14주 (5/30)	스토리텔링 공모전, 용인의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기획 우수작 발표	최 명 환	주관교수(인문대)	교 수	
15주 (6/6)	현충일				
16주 (6/13)	기말평가/이사주당묘역 탐방	주 동 완	한국외대 문화콘텐츠 전공	외래교 수	

※ [제1과제] 용인문화답사 보고서 [제2과제] 포은문화제 스토리텔링공모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7학년 1학기 강의 일정표〉

과목명	용인학	개설학부	전학과	수강인원	50
이수구분	1학기	개설학년	전학년	학점(시간)	2(2)
담당교수	임영상 외	강의시간	월요일 15:30~17:20 /인문관 2201호실		

주	강의일자	강의내용(교수)
1	02/27(월)	용인학 강좌소개 / 임영상
2	03/06(월)	용인의 지리와 역사, 인물 / 김장환
3	03/13(월)	용인의 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1: 영남길과 길문화 / 강진갑

4	03/20(월)	용인의 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2: 용인의 원도심 재생 / 주동완
5	03/27(월)	용인의 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3: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 박숙현
6	04/03(월)	용인문화답사 *실제 답사는 4월 1일 시행 / 김장환
7	04/10(월)	특강 : 포은문화제와 스토리텔링 / 유유석
8	04/17(월)	중간고사 / 임영상
9	04/24(월)	포은문화제(4/22-24) 현장 체험 / 한동현
10	05/01(월)	용인의 산업과 문화관광1 : 용인의 디지털산업 / 권미정
11	05/08(월)	용인의 산업과 문화관광2 : 용인의 지역축제와 문화관광 / 최명환
12	05/15(월)	용인의 전통문화와 사회운동1 : 용인의 유교문화 / 정양화
13	05/22(월)	용인의 전통문화와 사회운동1 : 용인의 교육과 새마을운동 / 이종구
14	05/29(월)	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용인의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기획) 우수작 발표
15	06/12(월)	기말고사 / 임영상

<단국대학교 2017년 2학기 강의 일정표>

교과목명	용인학	개설학부	교양기초교육원		
주관교수	윤승준	개설학년	전체	학점(시간)	2(2)
강의실	상경관 103호	강의시간	목요일 16:00-17:50		

주	강의일자	강의내용	담 당 교 수			비 고
			성명	소속	직책	
1	09/07	용인학 강좌 소개	윤승준	단국대학교	교수	
2	09/14	용인시 현황	정지훈	용인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3	09/21	용인의 도시형성과정	전병혜	용인발전 연구센터	연구원	
4	09/	용인의 땅이름에 대하여	정양화	용인문화원	교장	

	28			문화학교		
5	10/05	용인의 민속문화와 지역축제	홍순석	강남대학교	교수	
6	10/12	용인문화유적탐방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현장학습
7	10/19	용인의 역사와 인물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학예팀	팀장	
8	10/26	중간고사	윤승준	단국대학교	교수	
9	11/02	용인의 박물관, 미술관	김준권	경기도박물관 학예팀	학예관	
10	11/09	용인의 문화콘텐츠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11	11/16	용인의 고찰, 서봉사	서영일	(재)한백문화연구소	대표	현장학습
12	11/23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박숙현	용인신문	대표	
13	11/30	독립운동과 용인	김명섭	강남대학교	강사	
14	12/07	용인문화의 특성	최영철	단국대학교	교수	
15	12/14	기말고사	윤승준	단국대학교	교수	

※ 과제물: 용인문화유적탐방 보고서 & 용인시 정책제안 보고서 or 스토리텔링 “용인을 말하다”

그런가 하면 용인학이 개설된 지 8년 만에 용인문화원에서는 마침내 용인학 공통교재를 개발하여 2017년 1학기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간행하여 사용했지만 금년부터는 공통교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교재 발간에 참여한 집필자들이 용인시 각 부문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지금까지의 강좌 중심의 용인학에서 연구 중심의 용인학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용인학 공통교재 내용 및 집필자 명단>

연번	주 제 (강 좌 명)	집 필 자		비 고
		성 명	소 속	
1	용인의 지리와 인문환경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역사문화
2	용인의 역사와 인물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3	몽골 제2차 침입과 처인성 전투	이인영	전승문화연구소 이사장	
4	생거전천 사거용인의 유래	윤승준	단국대학교 교수	
5	용인의 유교문화(향교와 서원)	정양화	용인문화원 부원장	
6	이사주당의 태교신기와 현대적 계승	박속현	이사주당기념사업회장	근 현 대
7	용인의 항일 독립운동	김태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8	용인의 교육과 사회운동	이종구	용인학연구소장	
9	용인의 도시계획과 도시성장 과정	전병혜	강남대 미래복용복합 연구소 조교수	산업경제
10	용인의 산업과 경제	현승현	용인시 정책기획과 성과분석위원	
11	용인의 디지털 산업	권미정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스마트콘텐츠팀장	
12	용인의 사회적 기업	양은선	용인시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팀장	
13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과 백남준아트센터	박은주	백남준아트센터 전문 도슨트	문화관광
14	박물관·미술관의 도시, 용인	김준권	경기도박물관 학예관	
15	용인의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의 미래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16	용인시의 축제와 문화관광	최명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콘 텐 츠
17	글로벌 용인과 도시재생, 위키 콘텐츠	임영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8	용인의 역사문화자원과 콘텐츠 개발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	
19	용인의 도시계획과 도시 디자인	전창호	용인송담대학교 교수	
20	용인 문화탐방 자료집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문화 탐방



용인학이 개설된 6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행한 용인학 수강생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용인학 강좌 만족도는 5.00 만점에 3.72점으로 높은 편이며 용인에 대한 이해 도움은 수강 전 2.19에서 수강 후 3.89로 높아졌다. 또 좌측 분석표

에는 표기되지 않았지만 용인에 대한 관심도는 2.46에서 3.58로 올라갔고, 호감도는 2.78에서 3.56으로 높아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앞으로 용인학 강좌가 학문적으로 정착되고 용인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용인학 연구 결과물로서 논문집이나 정기 간행물의 발간이 필요하다. 용인학이 대학에서 정규 강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학으로서의 학문적 기반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가 관련 자료의 확보와 그에 대한 연구이다. 물론 그동안

용인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 온 성과가 다대하게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크게 진척되지 못한 실정이다. 용인학을 위해서도 자료의 정리와 검증, 학술적 연구가 진척되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논문집이나 정기 간행물이 발간되어야 한다. 지난해부터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에서 6개 대학 교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분야별 공동교재 개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금년 초 마침내 공동교재를 개발하고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각 대학에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교강사 인력풀의 확보와 관리 시스템의 가동 문제이다. 폭넓은 강의 주제와 두터운 교강사 층을 확보하는 문제는 용인학 강좌의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역학으로서의 용인학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헤드타워가 존재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 기능을 용인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 용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임이 용인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교수법의 개발 문제이다. 용인학 강좌는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하거나 P/F로 함으로써, 또는 우수 학생에 대한 용인시 표창을 통하여 학생들의 수강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용인학 강좌가 학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목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용인학 강좌의 경쟁력은 부수적인 어드밴티지에 있기보다 강좌 자체가 담고 있는 콘텐츠와 교수법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좋은 학점을 받기 어려워도 꼭 듣고 싶어 하는 과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강의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 강의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수요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용인학 강의는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일방 통행식 강의로 운영되고 있다. '소통의 용인학'을 지향한다면 이 점은 더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4. 용인학 아카데미 운영

각 대학에 용인학 강좌를 개설한 이후 ‘소통으로서의 용인학’을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개설한 강좌가 <용인학 아카데미>이다.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이고 향토문화 인력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인학 아카데미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용인학 아카데미는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용인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20강을 운영한다. 강사는 지역의 각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대학 교수들을 초빙하여 특강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 아래 일정표에서 보듯 매 4강을 마치면 5강 째에는 용인문화답사가 진행된다. 용인시를 권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 하루 일정으로 투어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본 문화원 문화유산해설사가 진행을 맡는다.

<용인학 아카데미>는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인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좌도 병행된다. 즉 ‘문화 콘텐츠 개발이 용인의 희망이다’, ‘용인의 문화자원,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까’, ‘축제 활성화가 지역문화와 경제를 살린다’ 등 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의 강좌를 포함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용인학 아카데미는 용인시 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겸해서 진행되었다. 때문에 2014년 용인학 아카데미는 2013년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운영하였다. 심화과정에서는 보개산성과 봉수지를 답사하는가 하면 할미산성 발굴 현장을 찾아가 현재 발굴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박물관 학예팀의 설명을 직접 듣기도 했다.
 용인학 아카데미의 모집인원은 50명이다.

〈용인학 아카데미 기초과정〉

차시	강 의 명	강 사	비 고
01	용인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이해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02	용인의 땅 이름의 유래와 세거성씨	정양화	전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
03	고려시대 용인-서리백자요지와 처인성	이인영	전승문화연구소장
04	문화유산 답사 방법론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05	용인 문화답사(동부지역-양지/원삼/백암)	진 숙	용인문화원 해설사
06	용인의 전통 취락구조와 공동체 문화	우상표	용인시민신문 대표
07	용인의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홍순석	강남대 국문과 교수
08	용인의 불교문화와 사찰 탐구	이종구	용인학연구소장
09	용인의 박물관, 미술관 두 배로 즐기기	김준권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원
10	용인 문화답사(서부지역-수지구/기흥구)	이을영	용인문화원 해설사
11	용인은 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의 성지였다	김태근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12	문화 콘텐츠 개발이 용인의 희망이다	강진갑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13	용인의 문화자원,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까	임영상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14	축제 활성화가 지역문화와 경제를 살린다	이선철	용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5	용인 문화답사(남부지역-이동/남사)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16	용인은 기호 유학의 중심이었다	이석호	전 연세대 중어중문과 교수
17	생거진천 사거용인의 유래와 풍수지리	윤승준	단국대 교육대학원 교수
18	세계 최초로 태교백과사전을 발간한 여인	박숙현	사주당이씨기념사업회장
19	용인의 고택과 한옥의 구조에 대하여	장두식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겸임교수
20	용인 문화답사(북부지역-양지/원삼/백암)	김정희	용인문화원 해설사

〈용인학 아카데미 심화과정〉

차시	강 의 명	강 사	소 속
01	해외 코리아 타운과 한류 특강	임영상	한국외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02	석주선기념박물관 관람 및 특강	박경식	단국대 사학과 교수
03	용인의 대외 항쟁사	이인영	전승문화연구소장
04	보개산성 · 봉수지 답사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할미산성 발굴 현장답사	양정석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05	조선 성리학과 향교 · 서원의 의례	윤여빈	실학박물관 학예팀장
06	용인의 실학자 조명	윤한택	인하대학교 교수
07	문화관광축제와 콘텐츠	오순환	용인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08	용인의 근현대 예술인 유적답사 (오전 미술가, 오후 음악가, 무용가)	오성만	서양화가, 한국미협 회원
		김장환	용인문화원 사무국장
09	전통사찰의 가람배치와 그 의미	강진갑	경기대 사학과 교수
10	문화재 한자용어 해설(1)	정양화	전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
11	문화재 한자용어 해설(2)	정양화	전 용인향토문화연구소장

12	문화유산해설 기법(1) 스토리텔링	박희주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13	문화유산해설 기법(2) 시나리오 작성법	박희주	경기대 관광개발학과 교수
14	해설 프로그램 실습1(동부지역)	김장환	용인문화원 문화유산 해설사팀
15	해설 프로그램 실습2(서부지역)	김장환	용인문화원 문화유산 해설사팀
16	해설 프로그램 실습3(남부지역)	김장환	용인문화원 문화유산 해설사팀
17	해설 프로그램 실습4(북부지역)	김장환	용인문화원 문화유산 해설사팀
18	평가회 및 수료식		

지난해부터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했다. 오늘날 산업화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달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념과 세대 갈등, 인간성 상실 등의 정신적 빈곤 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나의 변화를 통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용인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시민 아카데미는 총 8강으로 진행되었다.

〈2017년 용인시민 인문학 과정〉

차시	주 제	주요 내용	강 사
1강 (11.2)	인간관계가 재산!	21세기, 오늘날은 전문성과 인간 관계가 재산이다. 그중에서 인간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알아보기	김기환/ 단국대 초빙교수
2강 (11.9)	나는야 문화인!	군사력 보다는 문화의 힘이 국력인 시대가 바로 코앞에 와있다. 나는 문화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논해 본다.	이시백/ 소설가

3강 (11.16)	내 아이가 책을 읽는다!	진정한 책 읽기가 무엇인가? 느티나무도서관 이야기를 통한 도서관과 책읽기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재단 이사장
4강 (11.23)	나도 저자가 될 수 있다 -쉬운 글쓰기	글쓰기는 어렵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 내 인생 기록하기 지금 시작해 보자.	이재운/ 소설가 '토정비결' 작가
5강 (11.30)	2017년 인간학, 그리고 내 삶의 설계	내년, 2017년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설계해 본다.	신승환/ 가톨릭대 교수
6강 (12.7)	용인의 풍수지리 당신의 집, 몇 점짜리 풍수인가?	사주, 관상, 성명 등은 미신인가? 본인의 사주, 관상, 성명 등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심규순/ 서울풍수 원장
7강 (12.14)	'쉬운 통계학'으로 인생을 바꾼다.	통계란 정말 머리 아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업무에, 일상생활에 통계적 사유로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해 본다.	유일/ 중국투자자금 부총재
8강 (12.21)	용인을 아시나요?	용인의 역사, 그리고 역사적 인물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홍순석/ 강남대 교수

5.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용인학

한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지역사회는 개인의 인격형성과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이루는 모체가 되는 곳으로, 공동의 생활감정과 공통된 역사문화를 공유하며 긴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 애정과 친밀감을 갖게 마련이고, 특히 청소년들은 성장발달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가까이 있는 많은 역사적 인물이나 유적, 문화는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인 동시에 가장 훌륭한 학습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고장 청소년들에게 지역문화 교육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용인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대상: 용인시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초등 100개 학교, 중등 25개 학교 실시)
-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1회차 교육), 하반기(2회차 교육) 시행
- 대상: 용인시 관내 초(3학년 이상), 중등학교
- 운영방식: 학교 강당에서 상반기 1회차 교육, 하반기 2회차 교육 실시
- 교육내용: 1회차 교육: 용인시 역사와 문화인물
2회차 교육: 용인시 문화재와 문화시설

6. 용인학 정기 학술대회

용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역사인물을 중심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는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까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 고장의 예인, 김인호 선생을 조명했고, 하반기에는 생겨진천 사거용인의 유래로 널리 알려져 있는 평도공 최유경 선생을 집중 조명하였다.

2014년에는 용인지명 탄생 600주년을 맞이하여 600주년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015년에는 포은문화제 발전 방향에 대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6년 상반기에는 ‘용인의 기묘명현 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묘명현은 조선 중종 때 혼란스런 국가질서를 바로잡고 성리학적 이상 정치를 실현코자 개혁을 주도하다가 기묘사화로 화를 입

은 정암 조광조를 비롯한 사류(士類)들을 일컫는 말로, 용인에 연고를 두고 있는 기묘명현은 정암 조광조, 십청헌 김세필, 음애 이자, 방은 조광보, 회곡 조광좌, 휴암 공서린, 졸옹 이성동 등이 있다.

금년 하반기(12월)에는 용인의 관방유적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용인시에서 확인된 관방시설로는 할미산성, 보개산성(봉수터), 태봉산성, 처인성, 행군이토성, 임진산성, 건지산 봉수터 등 고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즉 시대별 관방유적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우리나라 대외 항쟁사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역사 자원이다. 최근 용인시에서 일부 관방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하거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관방유적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존과 관리 및 역사문화 콘텐츠로서의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조선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반계 선생은 17세기 중반, 임진왜란 및 병자호란으로 인한 백성들의 좌절과 동요, 경제 침체와 사회적 모순들이 만연된 국가체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일생의 역작, <반계수록>을 저술하였고, 그의 사상은 이익, 정약용, 박제가, 안정복 등 조선후기 실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반계 선생의 개혁정신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용인 실학 전통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취지였다.

<반계 유형원 실학사상 학술대회>

1. 반계 유형원의 실학정신과 그 교훈(정구복 반계유형원실학사상연구소장)
토론 : 우상표(용인시민신문사대표)
 2. 반계 유형원과 근기 실학(정성희 실학박물관 책임연구원)
토론 : 김태근(용인학연구소 부소장)
 3. 부안지역의 유형원 유적 보존과 선양활동(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토론 : 김지혜(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
- ◇ 종합토론 (좌장 김경수 청운대 교수)

7. 용인문화유적 투어

용인시민에게 용인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내 고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유서 깊은 고장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 시민으로서의 향토애와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용인향토문화유적순례는 용인문화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업의 하나이다.

특히 수지구 및 기흥구 지역에 새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산자수려한 용인의 자연과 환경 친화적인 도·농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오랫동안 난개발 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일소하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해 왔다.

본 사업은 1999년 전국 최초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문화 바로알기 사업으로 2016년 현재 17년째를 맞고 있는 바,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매년 6,000명에서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월 평균 시행 횟수는 20회(차량 20대)이고 참가인원은 600여 명이다.

2013년부터는 기존에 운영하던 동서남북의 권역별 4개 코스를 확대하여 5개 코스로 늘리고 5개의 특별코스를 신설하여 모두 10개 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코스로는 유학 테마 코스와 박물관 테마코스, 기흥지역 박물관 테마 코스가 있고, 답사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백암 지역 코스와 용인 8경 코스가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청 교사 및 교직원 연수, 경찰관 및 의무경찰 교육, 육군55사단 장병교육 등과 연계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코스	참가비	답사지 동선
제1코스	10,000원	정몽주묘소→등잔박물관→모현지석묘 →남구만묘소→호암미술관
제2코스	10,000원	평화의소녀상(용인시청)→체제공묘소 →처인성→동도사 3층석탑→이한음묘소
제3코스	10,000원	녹색에너지체험관→심곡서원 →김세필묘역→단국대석주선박물관
제4코스	10,000원	기후변화체험센터→와우정사→농촌테마파크 →이주국고택→3.1독립운동기념공원
제5코스	10,000원	은이성지→양지향교→읍취헌 밖은 시비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영화지(금송)
제6코스	10,000원	보정동고분군→민영환묘소(비석거리) →용인향교→장욱진고택
제7코스	10,000원	김혁공원→임옥여 동상 →해주오씨 3대 독립운동 기적비→3.1운동기념공원
제8코스	10,000원	대장금테마파크→허씨5문장묘소→미평리약사여래불
제9코스	15,000원	한택식물원→반계 유형원 묘소→예아리박물관
제10코스	18,000원	한국민속촌→경기도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
제11코스	10,000원	용인문화유적전시관→상하동고인돌 →민재궁→음애이자묘역→사은정

8. 지역 원로 구술생애사 발간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고, 마을이 하나 없어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연륜 있는 노인은 평생 우리 사회를 통찰해 오신 지역사 정보의 보고(寶庫)이다.

구술사란 한 개인이 자신의 과거 경험들을 기억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오늘날 역사연구의 한 분야로 널리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지역의 역사를 복원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사료의 발굴이다. 문제는 기존의 중앙의 역사가 지방의

역사를 주목하지 않다보니 지역의 사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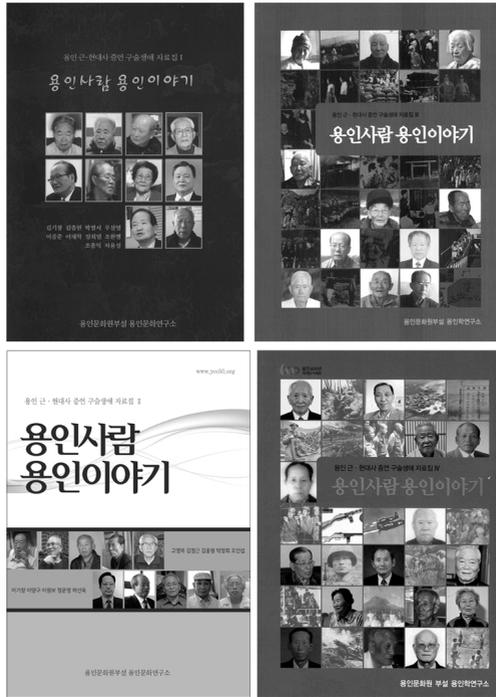
근대화 이전과 이후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로 인해 지역의 역사는 간과되거나 무시되어 사료 자체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즉 지역의 역사가 지엽적이라거나 보편적이지 않다고 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체가 실시되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의 체계적인 정립은 너무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지역민들 스스로를 역사 행위자, 즉 역사의 주체로서 그 중심에 놓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역사서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술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의 사료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구술생애사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이다.

용인문화원에서는 용인학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2010년부터 『용인사람, 용인 이야기』라는 타이틀의 구술생애사를 발간해 오고 있다. 매년 10여명의 분야별 원로들을 선정하여 개별적인 면담을 통해 그 분들의 말씀을 채록하여 기록해 오고 있는 것이다.

2010년부터 2년 동안은 지역 원로들을 대상으로 각 분야별 구술사를 제작하였으며, 2012년에는 일제의 근로 징용과 여성위안부 강제 징집 등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조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에는 6.25 때 참전했던 원로들을 대상으로 전쟁의 참상과 시대상을 조명하였다. 2015년에는 버스 안내원, 대장장이, 소장수, 이발사 등 ‘사라져가는 직업을 지키는 사람들’ 11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삶을 조명하였으며 2016년에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주역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2017년에는 4H 활동을 했던 원로들을 대상으로 구술사를 진행하였다.

근현대를 살아오신 구술자 분들이 연로하시므로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기억을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채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展)

용인시는 예로부터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이 터전을 잡고 살아온 역사문화의 고장이다. 고인들이나 청동검과 같은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을 비롯하여 삼국시대의 활미산성, 고려시대의 처인성과 서리백자요지, 조선시대에 조성된 향교, 서원, 사찰 등 각종 유불교 문화재, 그리고 수많은 역사인물들의 흔적에 이르기까지 선사시대로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어 선조들의 얼과 문화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수백 년 동안 세거한 문중들이 저마다 찬란한 문중역사를 전래하면서 수많은 문헌현사를 배출한 곳으로, 문중 특유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보석처럼 빛나는 미담이 무수히 많은 고장이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세대는 모두가 소중히 여기고 오래도록 간직해야 할 선조들의 옛 자취와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용인문화원에서는 용인시민이나 각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재들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속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2017년부터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을 갖게 되었다.

이는 100만 인구의 용인시가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용인시립박물관을 설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용인지역의 다양한 문화재와 사료(史料)에 대한 가치 향상 제고는 물론, 문화재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사라져 가는 시민 문화재의 발굴과 유효적절한 관리와 보존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으로 2회를 맞는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은 생활 민속자료로부터 도자기류, 서화류, 문헌자료, 각 문중 자료에 이르기 까지 약 20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는데, 여섯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민속자료>이다. 현대인들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전기도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이 있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상 생활용품들이 지금은 귀한 민속자료로 남아 우리에게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한다.

두 번째는 <도자기류>이다. 고대에는 흙을 구워서 만든 토기가 사용되었고, 고려시대부터는 유약을 사용한 자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전시에는 고대 토기로부터 고려청자, 분청사기, 조선백자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자기류를 전시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서화류>이다. 조선시대에는 양반 사대부에서부터 상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양식의 그림을 그렸다. 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를 비롯하여 십장생도 등의 민화에 이르기 까지 조선시대 최고의 서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문헌자료>이다. 왕이 세자에게 교훈을 주고자 평소 생각하거나 경험했던 일들을 교육 자료로 남겼는가 하면 선비들이 써 놓은 서간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문중자료>이다. 용인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수백 년을 세거해 온 문중들이 많다. 때문에 문중마다 독특하고 찬란한 전통을 꽃피워 왔는데, 금년에는 용인이씨, 해주오씨, 청주이씨, 전주최씨 등 네 문중이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의 예능 보유자, 녹야 김운덕 선생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유품 자료를 함께 전시하게 되었다.

10. 부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 운영

본 문화원에서는 부설로 운영하는 연구 단체가 용인학연구소 외에도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와 규방문화연구소가 있다. 용인에서 일어났거나 용인과 관련된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해 2002년 3월에 발족한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용인학연구소 연구위원들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용인시의 항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제반사업과 용인시의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함양하기 위한 각

중 기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02년 창립 이후 매년 시민주도의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 거리행진을 개최하였으며 8월 15일에 광복절 기념행사도 개최하였다.

특히 창립 당시부터 용인독립운동 선양을 위한 정기 학술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 학술행사를 통해 용인의 3.1운동, 의병 항쟁, 애국계몽운동과 이한웅, 여준, 김혁, 남정각, 정철수, 오의선, 이홍광 등과 같은 용인 관련 독립운동가의 항일민족운동이 새롭게 조명되었다.

2005년부터는 용인 3.1독립운동기념 시설 건립 운동을 전개하여 2011년 4월 21일, 용인에서 최초로 3.1만세운동이 봉기한 터에 용인3.1운동기념탑을 건립할 수 있었다. 또 2005년부터 매년 6월에 용인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인 독립운동 유적지 순례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를 통해 독립운동 소감문 공모대회도 함께 개최하여 입상자들에게는 신흥무관학교 터 등 만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 3월부터 수지구의 3.1만세운동 기념탑 건립을 추진하여 시민의 성금을 바탕으로 2009년 11월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지 3.1만세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였고 2008년과 2009년에는 용인독립운동사 및 용인독립운동 논문집을 발간하여 용인시민 및 관련 기관에 배부하였다.

2011년에는 신흥무관학교 100년과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학술행사와 관련 자료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인의 독립 운동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한 용인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떠나 온 국민이 함께 일어나 자주독립을 외쳤던 3.1독립만세운동이 내년이면 100주년을 맞는다. 우리 민족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거로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나라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만큼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용인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당시 3.1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용인

군민 32,000명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32,000명의 시민을 모집하여 당시 3.1독립운동을 재현하는 등의 다채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1. 글을 마치며

용인시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오랫동안 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진흥하고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이에 용인문화원은 진정한 지역 자치는 문화자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미래 지향적 패러다임으로 용인학의 토대 위에서 우리 고장의 다양한 문화자원들을 적극 발굴하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수많은 역사문화 자원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자라는 청소년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용인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乡심을 갖게 하고, 용인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용인학이 출범한지 7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희망적인 미래보다는 산 넘어 산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이는 지역학의 연륜이 짧은 이유도 있겠지만 지역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넓게 확산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지역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체적인 자기문화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인 삶과 연계시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접맥된 문화적 기반 위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문화원의 고유한 기능이기도 하다. 현재 많은 문화원에서 지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지역학은 중앙 집권적 구조에서 과감히 벗어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이론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예술, 지리, 인문환경까지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소외되고 있던 지방이 더 이상 변방적 타자가 아니라 어엿한 주역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지역학이기 때문이다.

지역학은 지역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학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각 지역사회에 더욱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지방 문화원의 미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원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수많은 정보를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역학적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다.

「용인학연구소의 운영실태와 과제」에 관한 토론문

김중옥(전 공주대 교수, 예산문화원 이사)

2010년부터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향토문화연구소를 개칭하여 용인학 연구소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용인학연구소는 앞으로 예산학연구소를 설립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예산문화원의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용인학연구소의 개설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은 너무도 훌륭하고 알차며 또 발표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지적하거나 코멘트 할 것은 없다. 다만 이를 벤치마킹하여 예산학 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참고로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로 6개 대학의 강의 일정표를 보면 각 대학마다 내용은 다소 다르나 담당교수는 겹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교수가 6개 대학의 강의를 함께 담당하는 듯하다. 각 대학의 용인학 강의는 용인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강의팀을 구성하여 각 대학에 돌아가며 강의를 하는지, 아니면 용인학연구소에서 인력풀을 만들어놓고 각 대학에서 강의내용을 개발한 후 그 인력풀에서 해당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는지 알고 싶다.

또한 최근에는 용인학 공통교재를 발간했는데 공통교재에 실릴 내용을 결정하는데 어떤 절차와 방법을 썼으며 또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내용을 결정했는지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용인학 내용을 한편의 공통교재에 수록하기에는 벅찰 수도 있는데 공통교재를 발간한 후 앞으로 수정 보완 내지는 새로운 내용들로 증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로 용인문화원과 용인학연구소가 어떤 관계로 운영되는지도 중요한 벤치마킹 내용이 될 것이다. 예산, 행정, 조직, 업무추진 등에 있어서 전혀 다른 독립기관인지 아니면 용인문화원 부설 용인학연구소인지 또 현재 시스템의 장·단점과 개선할 점도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로 용인학아카데미, 용인시민 인문학과정의 강의주제와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떤 목표와 의도를 정하고 그에 맞추어 정하는지, 카테고리별로 균형을 맞추어 정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정하는지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넷째로 용인문화유적투어의 월평균 시행횟수는 20회(차량20대)이고 참가인원은 600명이라고 했는데, 매월 며칠 동안 시행하며 1코스~11코스별 인원은 어떻게 배분하는지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다섯째로 용인시민 소장 문화재전에서는 민속자료, 도자기류, 서화류, 문헌자료, 문중자료 등을 전시하는데 이들 자료들 중 소장자가 귀하게 여기는 물품은 분실에 대한 염려로 선뜻 전시품으로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시시설이 용인학연구소에 마련되어 있는지, 또 전시자료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유인책을 쓰는지도 중요한 벤치마킹내용의 하나이다.

끝으로 용인학연구소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준 발표자께 깊이 감사

드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본 토론자가 제시한 질문성 토론내용들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예산학연구소의 개설준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학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와 지역학적 과제1)

송충기(공주대 사학과)

1. 지역학과 아카이브: 원천 자료의 확보
2. 공주학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와 시사점
3. 지역 아카이브의 미래: '지역문화의 플랫폼'

1. 지역학과 아카이브: 원천 자료의 확보

지역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고 또 쉽게 정리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카이브에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 지역학의 주체는 지역 주민이기보다는

1) 이 글 가운데 제4장만 새로 집필한 것이고 나머지 내용은 필자가 이미 여러 곳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① <공주아카이브의 구축방향>, 제4회 문화유산학술세미나 (2013.11.28.). ② <공주학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국립공주대학교 공주학연구원 개관기념 토론회 '공주학의 미래를 말하다(2015.5.12.)', 4-9쪽. ③ <공주, 지역학에 기대어 미래를 준비하다>, 『고도공주 고마나루 이야기』 제11권, 2015년 여름, 6-11쪽. ④ <공주학아카이브 구축 사례에 관한 연구>(고순영과 공동발표),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학술 세미나 '지역학과 지역아카이브' (2015.11.19.) 75-89쪽.

2) 이해준, <최근의 지역학 동향과 방향>, 2015년 충남학 포럼, 지역학으로서 충남학의 가능성과 미래(2015.12.15.)

전문연구자이다. 이들이 대학이나 문화단체, 혹은 관련 연구소에서 주축을 담당한다. 물론 향토사연구자들이 있고 또 이들의 활동이나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보조적인 역할에 그친다. 둘째, 지역학은 현재 기존의 거의 모든 학문이 망라되어 있는 종합학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역사, 민속, 예술 등 어느 지역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다 포함된다. 이는 최근 대두하고 있는 융합학문의 성격을 반영한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학에서 주체가 변화해야 하고 또한 융합학문의 성격을 재고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자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학이란 공주와 같은 기초단체의 범주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서울학이나 인천학, 혹은 제주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하고 싶다. 용인이나 공주와 같은 기초적인 지역단위의 경우, 위 두 가지 지점이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학도 학문인만큼 학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정에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학문의 전문화 과정이 소규모 지역의 '학문'을 수행하기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학문의 실천이나 수행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전문연구자가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렵지만, 오히려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두 번째는 융합학문으로서 지역학에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 지역학은 기존의 학문체계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으로 먼저 나누고 그것을 다시 융합시키는 학문의 작업이 아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각 분과학문으로 분리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의 학문이어야 한다. 지역학 연구가 일단 분리하여 각 분과별로 연구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합치는 학문일 경우 그 한계가 뚜렷하다. 기존 핵심 학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학은 한 지역을 연구대상을 삼는 신생 학문이지 기존 학문의 종합이 아니어야 한다. 지역학은 기존 학문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지역민의 삶을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범주의 대상으로 간주함으로써 일종의 지배적인 문화체계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설명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야 한다.³⁾ 말하자면 이제 지역학은 주민들을 삶을 분석하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기존의 학문체계에 따르면 전문가의 판단과 지식구성 체계에 따라서 보편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 스스로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만약 지역학이 주민들의 삶이 스스로 표현하도록 지향한다면, 주민들에 관한 모든 자료나 일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삶의 기록은 전문화된 학술방식에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주민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지역학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다양한 자료의 확보이다. 그래서 지역아카이브가 필요한데, 문제는 흩어진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현대계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만으로 과분한 성과일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그렇듯이 지역학에 대한 자료가 현재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고 또한 아쉽게도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연구에 엄청난 시간에 소모된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자료도 원천자료라기보다는 어느 전문분야에서 이미 가공한 경우가 많다. 지리학이든 민속학이든 역사학이든 전문가의 손을 거쳐 가공된 자료가 많다.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원석의 상태로 있는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이러한 자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말한 본연의 지역학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역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연구서, 문헌 등 2차 자료의 수집도 시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원석과 같은 1차 자료의 수집에 더 집중해야 한다. 이로부터 아카이브의 필요성은 당연하게 나온다.

3) 이것은 인류학에서 말하는 에틱(etic)과 에믹(emic) 접근법의 차이로 이해된다.

2. 공주학아카이브의 구축 사례와 시사점

1) 구축 과정

2012년 공주시와 공주대학교가 공주학에 관한 연구센터를 건립하기로 협약했는데 기본내용은, 공주대학교가 건물부지를 공주시가 건축비용을 제공하여 공주학연구원을 설립한다는 것이었다.⁴⁾ 이에 따라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었고⁵⁾, 2014년 4월 공식적으로 공주학연구원이 출범했다. 이어 기본계획안에 따라 공주학 건물이 세워졌고, 아카이브 구축이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공주학아카이브는 기본적으로 공주학의 토대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보존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혹은 전문분야 내에서 부분적으로 활용되던 공주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가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는 기능을 수행한다.⁶⁾ 공주학아카이브의 방향성은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

4) 공주에서 다른 곳에 비해 다소 일찍 지역학 연구소가 마련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고 공주향토문화연구회 등 향토사와 관련된 모임이 꾸준히 활동했다. 또한 이들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학술모임을 가졌고 잡지도 발간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의 대학과 연구원에서도 백제문화 등 지역문화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비록 지역학이라는 구체적인 학문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연구자들이 지역을 기반한 학문적 틀 내에서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교류가 이후 지역학을 잉태할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해준, <공주학의 가능성과 기대>, 『공주학강좌』, 9-20쪽, 인용은 14쪽.

5) 이해준 외, 『(가칭) 공주학 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 결과보고서』 (2013).

6) 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지역기록을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보존

만, 대체로 다음 네 가지이다. 참여형, 디지털형, 융합형, 그리고 지속형이다. 참여형은 시민이 참여하는 아카이브이고, 디지털형은 인터넷이 기반한 아카이브, 융합형은 박물관이나 도서관과 연계 혹은 그들의 기능을 흡수한 아카이브를 말한다. 지속성은 현재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미 생산된 문서를 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과거인 현재를 기록하는 작업을 동시에 해 간다는 뜻이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거론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공주학아카이브의 기본방향
 (출처: 공주시·공주학연구원,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2017, 7쪽)

디지털 아카이브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
- 하며 활용하는 기관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주시청, 공주대, 공주시 교육청 등에 기록연구사가 채용되어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기록에 국한됩니다.
- 7) 송충기, 「공주학아카이브, 어떻게 할 것인가?」, 『공주학의 미래를 말하다』, 공주학연구원 개관기념 토론회 자료집, pp. 4-9.

지역 기록의 수집과 정리는 물론 이고 이것이 잘 이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공주학에 관련된 자료의 서지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그에 대한 검색기능을 추가하고, 이어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다.⁸⁾ 수집된 자료를 가능하면 모두 디지털로 만들고 정리하여 검색기능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이다. 국가기록원, 영상자료원, 각 신문매체 등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제공하고자 하는 작업도 추진했다(다만 아카이브끼리 자료를 공유하는 일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또 다른 작업으로는 공주의 지방신문들과 연계하여 그들의 자료를 공주학 검색기능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각종 학교나 관공서, 단체 혹은 개인의 기록을 정리하여 일부는 공주학연구원 자료실에 옮겨올 계획도 시범적으로 추진했다. 그럴 경우 가능하면 문서나 기록물의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기증받아 디지털로 공주학자료실에 포함시키고자 한다.⁹⁾

참여형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에서 실질적인 주체가 더 이상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물론 기록물 관리가 점차 기술적으로 첨단화되면서 이에 대한 인력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역 아카이브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서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참여형 아카이브는 이러한 기술적인 관리의 측면에서보다 아카이브 콘텐츠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공주학 연구원에서 표방하는

8) 조현양, <국가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역할>, 2013 디지털 도서관 심포지엄 (문화융성의 시대,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의 대응전략)(2013. 5. 22)

9) 지수결, '공주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대한 토론문 (2013. 11. 28). "공주 아카이브 구축의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각각의 기관들이 자신의 설립목적에 충실한 활동을 지속하는 가운데,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법으로 '네트워킹'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럴 때 네트워킹의 중심은 공주학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주학센터는 자치제와 대학과 지역사회(주민)의 합의 가운데서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이다."

연구의 주체가 연구자가 아닌 시민이고, 비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고장의 기록문화에 애정을 쏟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며 더 나아가 기록화 하는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은 시민기록연구자 양성과 구술기록화이다.¹⁰⁾ 구술기록화 작업은 지방에서 사라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 문서로 기록된 바가 적기 때문에, 혹은 더 나아가 전문적인 역사에 의해 기억이 퇴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하여 시작된 것이다. 기록화 작업은 과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향후에 시민기록연구자가 ‘양성되면,’ 이들이 지역의 현재, 특히 지역의 일상을 기록함으로써, 아카이브가 과거만이 아닌 현재에 대한 기억, 다시 말하자면 ‘미래의 과거에 대한 기억을 남기도록 하려는 것이다.

융합형 아카이브의 형태는 공주학연구원의 다른 기능, 곧 조사 및 교육 기능과 연계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공주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등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공주학아카이브가 형성되면 조사연구부와 연계하여 공주에 관한 특정한 주제들, 예컨대 금강교,

10) ‘다행스럽게도’ 이제 정보자료는 전문가들의 손에만 있지 않다. 빅데이터가 그렇듯이 정보를 가공할 전문가는 필요하지만, 정보가 다양화되었고 또한 용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지역아카이브는 공공기록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생산해낸 기록에 의존해야 한다. 공공기록물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 자료임을 부인하긴 어렵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생활에 대한 것이다. 주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공적인 문서로만 밝혀내기 어렵다. 그것과 무관한 공공생활과는 일상적인 삶이 훨씬 더 넓게 존재하고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의 삶을 결정짓는다. 이에 관한,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한 기록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접근하기 용이한 것이고 따라서 기존의 기록물과 차별화될 수 있다. 일상에 무심코 찍은 한 장의 사진이나 한 조각의 메모가 어느 주민의 일에서는 그 어느 공공기록물보다 더 소중한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산성, 계룡산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옛 문헌, 옛 신문기사, 구술자료, 사진, <대한뉴스>와 같은 동영상 등등)를 가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디지털 전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서관, 문서고, 박물관이 기능을 혼합하는 라키비움(Larchiveum)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는 간단히 말해 일종의 통합형 수집기관을 세워서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다. 간행물(도서관), 기록물(문서고), 유물(박물관) 등 과거의 아날로그 자료는 그 특성이 분명해서 따로 관리해야 마땅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로 인해 그것의 갖는 정보의 상호교환성이 증대되면서 이제 이용자들은 자료 유형을 불문하고 주제별로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공산성에 대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전에는 문서고에 가서 옛 기록물을 확인하고, 박물관에서 가서 출토된 유물을 보아야 하고, 도서관에서 가서 그에 대한 연구논문을 찾아야 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받기를 원한다. 공주에 관한 기록물이나 유물 혹은 책이 모두 디지털화를 거쳐 한곳에 모여 있으면, ‘공산성’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그에 대한 옛 기록물과 유물 사진 혹은 책 내용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¹¹⁾

지속형 아카이브는 단지 과거에 만들어진 기록을 찾고 정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기록해가는 적극적인 의미의 아카이브를 지향한다는 뜻이다. 물론 과거의 기록물을 찾아서 수집하는 것만으로 벅찬 일이지만 사실 지역아카이브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부실한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귀중한 자료는 중앙인 국가에서 만들고 국가에서 수집하기 마련이다. 특히 지자체 단위에서 낮은 공주에 경우 많은 귀중한 자료는

11)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광승진, <도서관의 미래상 : 라키비움(Larchiveum) 도입 방안>, 2013 디지털 도서관 심포지엄 (문화융성의 시대,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의 대응전략)(2013. 5. 22)

충남역사문화원이나 도청기록실에 소장하고 있기 마련이다. 이처럼 이들 군소 지역에서는 지역아카이브의 장기적 전망을 좌우하는 귀중한 콘텐츠가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기록화 작업을 스스로 진행하거나 지자체가 앞장서서 기록화를 의무화시키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략 이러한 방향성으로 3년간에 걸쳐(지금은 1년이 연장된 상태이다) 수집, 정리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초작업을 완성하도록 계획표를 수립했다. 다소 비현실적인 기간이었지만 최소한의 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원래 구축계획에서는 해마다 특정한 분야를 정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었지만, 막상 공주학연구원의 설립과 동시에 기초조사를 해 본 바로는 여러 여건상(공주학 및 공주학연구원에 대한 합의 부족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인력과 경험, 전문성이 부족한 탓도 있다) 타당하지 않아서 수정이 불가피했다. 수정한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첫째는 관리시스템의 도입 시점이 원래 1차년도로 계획했지만 여건상 문제가 많아서 제2차년도로 미루어진 것이고, 둘째는 그에 따라 수집전략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이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이후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초기단계에서 공주에 관련된 자료가 대략 얼마인지 혹은 형태별 분류를 어떻게 해야할 지 논의해야할 사항이 많았다. 또한 다른 곳의 사례에서 그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도 어려웠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공주학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총목록을 작성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예산과 공주학개관 시기 등으로 그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록관리시스템은 그것을 도입할 때 해당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게 최적화해야 하는데, 공주학아카이브의 경우 초창기에 독자적인 특성을 확신하기 어려웠다. 공주학이 무엇이고 어떤 분야로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도 어려웠고, 따라서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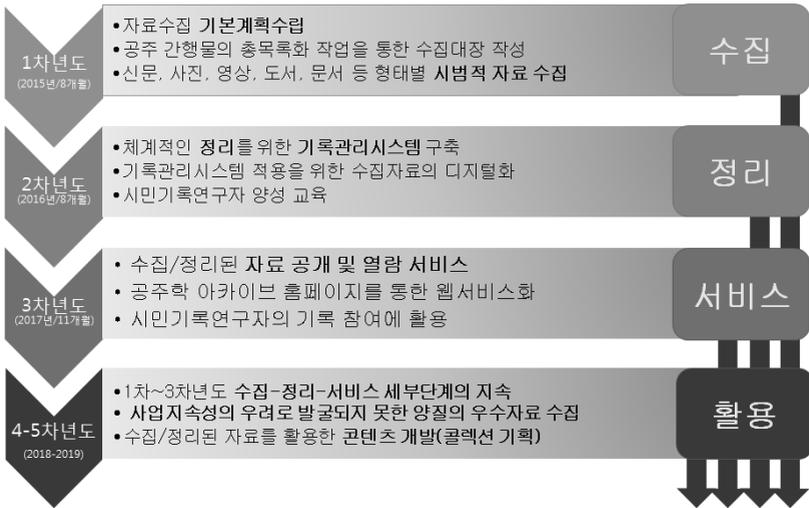


그림 2 공주학아카이브 구축단계((출처: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9쪽) 분야에 치중하여 수집할 것인지를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물론 실질적으로는 역사분야로 시작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말이다). 그래서 부득이 전략을 수정하여 제1차 년도에는 일단 총목록을 작성하여 예비조사를 시행하되, (기록관리시스템의 도입을 미루고 대신 그 예산으로) 다양한 형태의 자료(용역보고서, 사진, 동영상, 구술, 신문기사 등)를 수집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독자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도출하고 난 이후에 기록관리시스템을 이곳 사정에 맞추어서 들여오기로 했다. 이렇게 도입된 관리시스템도 개방성이 부족하여 시민연구자들의 자료를 업로드할 때 불편해서 제3차 년도에 추가적으로 시스템을 확보해야만 했다.

연도별		형태별		출처별	
연도	수집량	형태	수집량	출처	수집량
2015년	34,505	도서간행물	7,043	개인	5,149
2016년	14,289	사진류	42,561	기관	51,321
2017년	9,059	시청각류	400	단체	1,357
		문서류	7,332	업체	26
		박물류	469		
		구술류	48		
합 계			57,853		

표 1. 공주학아카이브 자료수집현황
(2017년 말 현재, 출처: <공주학아카이브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15쪽)

2) 시사점

기획단계에서 실제 수집단계로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등장했다. 어떤 부분은 예견되었던 바였다. 이를 테면 예산이나 인력, 관심 등의 문제였다. 예산이 3년 동안 보장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기록학 석사급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어려웠고, 또 초빙한다고 해도 지역적 이해가 부족한 점은 문제였다. 그렇다고 내부에서 전문가를 뽑은 시일 내에 양성하기도 곤란했다. 공주학아카이브는 결국 후자의 방법을 택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장점도 많았지만 예정된 기간 안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이 적지 않았다. 더 나아가 이는, 단기적으로 자료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거나 선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예산을 사용할 때 어려움이나 홍보의 부족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주학아카이브가 구축되면서 겪은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이다. 이것을 크게 수집, 정리(관리), 그리고 서비스(이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집과정에서 문제는 범위와 전략인데, 이는 지역아카이브에 특수한 어떤 측면일 수도 있다. 수집계획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공주학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있어 공주라는 지역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적인 이야기이지만, 문제는 공주의 경계를 무엇으로 삼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공주가 행정구역인지 지역정체성인지 문화적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아주 쉽게 말해서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공주지역의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제강점기 자료도 보면 1932년까지 충남도청이 있었던 지역이라도 청 산하 여러 시설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공주의 지역자료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충남관청의 자료로 정해서 수집해야 하는지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공주에 관한 내용이 50% 이상이면 공주자료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닌 것인지, 혹은 공주에 관한 자료가 1%라도 있으면 그것을 공주자료로 분류해서 수집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더욱이 기존 자료들은 역사, 지리,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수집범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수집전략이 처음부터 적절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된 것도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는 근본적으로 단기간(1년)의 예산편성으로 불확실성이 컸다는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집분야의 우선순위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앞서 제시한 수집범위에서 역사분야가 우선순위에 올라와 있었지만, 수집성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역사에 관련된 일관된 수집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밀고 나가기보다는 단시간의 성과에 집착했던 측면이 드러났다. 게다가 수집된 결과를 보더라도 자료가 역사에 치중되어 있는데, 공주의 특성이 역사도시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오히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역학의 종합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¹²⁾

12) “사실 누가 현재 공주에 관련된 어떠한 주제를 조사하려고 한다면 우선 행정문서부터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니 지역 혹은 지역학 아카이브에서 행정문서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상 공주에 관련된 행정기록물은 국가기록원이나 앞으로 설립될 지방기록물보존소에서 관리하게 될 것이다. 지방기록물보존소에서 자료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현재는 그것조차 불가능한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자료를 선별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아카이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다. 수집된 자료 가운데에는 사전이 선별을 거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다. 특히 이관된 자료의 경우 중복되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대조작업과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수장고가 없는 협소한 관리장소도 문제이지만, 설사 그러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집된 자료를 모두 동일하게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신중해야 한다. 여기에는 당연하게도 전문가적 식견이 요구되지만, 사실 기존의 전문적 기준으로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자료나 사진이 아주 평범한 일상을 담고 있을 경우 당장 그것의 가치를 알아차리는 경우는 전문가로서도 아주 드물다. 예컨대, 자료를 수집하다보면 지역에서 오래도록 다량의 사진을 수집해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평생 모은 사진을 늘어놓으면 한 방을 가득 채울 정도이다. 이런 경우 그 사람이 가진 수천의 사진 중 공주의 사회적 의미가 담긴 몇몇 ‘중요한’ 사진을 선별할 수도 있지만, 공주의 지역민인 한 사람의 사진수집활동기록을 수집하고자 한다면 그가 모은 사진자료가 모두 수집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인’ 가족사진의 경우도 모아두면 점차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미래에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예측만으로 자료를 평가하는 것도 권장할 만한 방식이 아니다.

자료나 정보를 단순히 모아두거나 저장해 놓은 데이터베이스에 그

상황이다. 그 결과 지역 혹은 지역학 아카이브로서 공주학아카이브가 갖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것은 단순히 행정문서가 부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행정에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생기는 자료의 비대칭성이 아카이브 구축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정보공개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한다. 그보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제일 큰 문제는 공적인 행정문서를 의식하여 ‘사적인’ 일상에 대한 자료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는 전략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구술이나 기록화에서 일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그 단적인 예에 속한다.”

치지 않고 지역학이나 지역성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자료를 분류하고 정리하려면 과연 어떠한 방식이 최선인가? 자료를 내용상 유기적으로, 특히 아카이브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배치하는 것은 자료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지역성 혹은 지역학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이라면, 곧 공주라는 지역성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자료 분류와 정리의 방식은 기존의 학문체계와 방법과 달라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역적인 분류가 맞는 걸일까? 예컨대, 공주의 자료를 ‘지역’에 따라 분류하자면, 공주는 전체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지역, 말하자면 금강, 계룡산 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소지역(계룡, 유구 등)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 관한 자료는 과연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가? 또한 주제별 혹은 지역별로 접치는 자료는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원자료의 수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메타정보의 유실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관공서 문서라면 생산자별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 있지만, 공주학아카이브처럼 민간 기록물이 주류일 경우 메타정보의 상실은 예견된 바 있었다. 특히 사진 매체의 경우에는 공주학아카이브에 이관되기 이전에 메타정보가 많이 소실된 상태이며, 동영상 매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료로서 가치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되어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생겨난다. 메타정보가 유실되면서 자료나 사진의 원저자가 불분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사진이나 신문기사 등은 저작권 비용이 워낙 높아서, 공주학연구원에서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제약되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향하는 데 어려움이 수반된다. 게다가 저작권의 문제는 전문가조차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결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서 자료의 정리가 자주 지체된다.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를 서비스하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편리성과 개방성을 내세우면서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

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게다가 공주학연구원은 시민을 주체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것의 중요성을 말할 나위가 없다. 이후 일반 시민들이 기록화에 나서고 정말 아카이브의 주체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 이전에는 이용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아카이브의 가치를 높이고, 기록연구자를 교육시키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끌 수 있기까지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주학아카이브에서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것은 아카이브의 콘텐츠화이다. 말하자면 자료를 그 자체로 놓아두면 전문가 이외에는 이용할 사람이 많지 않으니,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카이브 자료를 일종의 문화콘텐츠로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융합형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카이브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자료의 콘텐츠는 시대의 흐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이끌어낼 인력, 다시 말해 지역의 소규모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콘텐츠로 만드는 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렵다.

3. 지역 아카이브의 미래: ‘지역문화의 플랫폼’

그렇다면 향후 지역 아카이브를 어떻게 될까? 먼저 지역의 구조적 현실을 살펴보자. 최근 늦었지만 지방기록원이 설치하려는 반가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지방의 기록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지방기록원의 설립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의 논의는 이에 머물러 있다. 이것조차 어찌면 실현하기 쉽지 않고 또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제 지방의 기록문화를 한 층 더 높이고 주민 스스로의 역사쓰기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할 때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이 글로컬리즘이나 지역정체성을 앞세워 지역의 독특한 성격을 찾고자 노력하고 지방아카이브에 대한 관심도 드러내고 있어서 반가운 일이지만, 이것조차 결과적으로는 양날의 칼이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에 대해 내놓은 예산은 대부분 빠듯하여 결과물이 신통치 않을뿐더러, 새로운 아카이브를 시도하는 것은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면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중앙의 아카이브 형태를 단지 규모만 축소한 채 그대로 이식시켜 편박이를 만들기 십상이다. 결국 이렇게 구축된 지역아카이브는 중앙 아카이브의 축소판이 될 뿐 지역 현실에 부응하지도 제대로 활용되지도 않은 채 막을 내리게 될 것이 뻔하다.

지역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 또 다른 문제점의 하나는 전문가의 부족이다. 지역성을 살리려면 지역전문가가 중심이 되어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하지만, 지역 전문가이자 아카이브전문가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지역이란 좀처럼 없다. 아카이브 전문가가 중앙에서 모셔온다고 한들 지역 현실에 맞지 않은 의견을 내세우기 일쑤이고, 지역에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느슨한 지역 전문가들의 협의체나 공동자문회의와 같은 중간매개적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자니, 관심부족과 조정역량부재 등으로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이러한 지방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지역아카이브의 미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카이브 환경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 변화의 내용은 물론 중앙 및 전문 아카이브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지방아카이브의 구축에서 더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아카이브에서 디지털화는 거의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아카이브에서 미치는 영향은 중앙의 그것과 조금 차별화하여 볼 필요가 있다. 지역의 아카이브는 중앙의 그것과 달리 큰 예산이 소요되는 하드웨어를 모두 장착할 수 없다. 그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요구할 만큼 그리 많지도 않다. 게다가 지역 자료 가운데 귀중한 것들은 국가기록원이나 다른 전문기록보존소에 있다. 그러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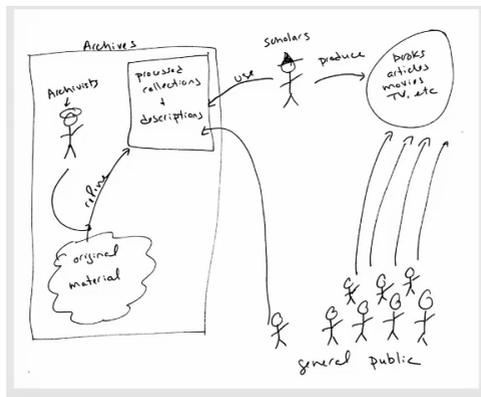
로 중앙의 디지털화 장치를 지역에 그대로 이식시키는 것은 비용이나 인력 면에서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디지털화 자체를 거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역에 걸맞은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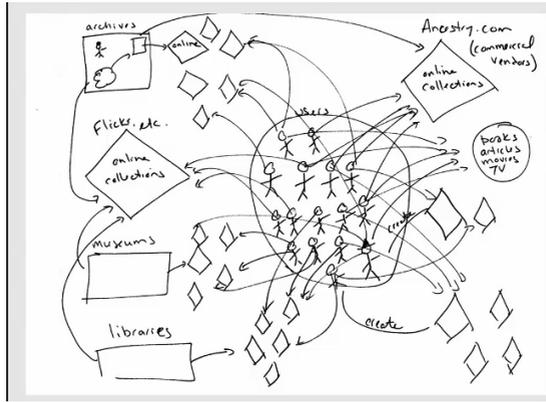
게다가 디지털화로 인해서 아카이브를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카이브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여 보자면, 기존의 아카이브의 사업 모델은 산업생산과 같다. 자원에서 가치 있는 재료를 뽑아내 생산 공정을 거쳐 귀중한 제품을 만들어내듯이, 아카이브에서도 산더미 처럼 많은 자료 가운데 귀중한 사료를 뽑아내고 그것을 정리하여 아카이브로 만들어 내면,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를 이용하여 책이나 소설 영화 등을 만들고, 일반 대중은 이를 최종적으로 소비한다.¹³⁾ 이에 반해 미래 아카이브가 수행해야 할 사업 모델은 이와 전혀 다르다. 앞서 말한 대로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면 그 자체가 모여서 상업화 모델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¹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는 양방향소통(interactive)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료를 만들어 다시 아카이브가 확대된다. 게다가 앞서 말한 대로 아카이브, 박물관, 도서관이 디지털로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 이로써 대중의 접근과 참여가 훨씬 용이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일종의 플랫폼이 된다. 요컨대 아카이브의 전통적인 임무는 지속되는 가치를 담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던 반면, 새로운 임무는 사람들의 삶과 과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그에 대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13) 이에 대해서는 카테 타이머(Kate Theimer)가 2014년에 발표한 내용을 참조했다. “The Future of Archives is Participatory” Archives as Platform, or A New Mission for Archives” <http://archivesnext.com/?p=3700> (최종접속, 2016년 12월 1일). 이것을 녹화한 비디오 강연은 https://dl.dropboxusercontent.com/u/38369678/Theimer_Offene%20Archive%202-1%20Keynote.mp4 (최종접속, 2016년 12월 1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 Kate Theimer는 이의 사례로 Ancestor.com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가족사 혹은 족보를 찾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개인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필자도 이것을 우연한 기회에 접해 보았는데 흥미로웠다.

앞으로 아카이브가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으면 중앙의 아카이브나 행정중심의 아카이브보다 지역아카이브에 더 적합할 수 있다. 사실 지방아카이브는 설립되어도 이용자가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산업적 모델에서는 효율성이 아주 떨어졌다. 비용을 많이 들여 아카이브를 지어놓았지만 이용자가 적으면 곤란하다. 1990년대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박물관, 도서관, 아카이브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중앙아카이브나 전문아카이브는 투자비용 대 산출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기능의 중요성)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비용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속수무책이다. 행정문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야 행정적 필요성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면 시행할 수밖에 없다. 민간기록물은 이와 다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민간기록도 어느 정도 수집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지방기록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역아카이브의 설립으로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새로운 아카이브의 환경에 최선인 방식을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다. 새로운 아카이브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카이브 수집과 정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도록 하는 방식 말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전에 먼저 지방기록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현재 지방기록물 관리가 행정문서에 초점에 맞추어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민간기록물도 때로는 기획되어 수집되기도 하고 귀중한 것은 기증을 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찌면 공공기록물의 관점에서 ‘귀중한’ 자료에 국한되어 있다. 시골에서 흔한 결혼식 사진이 수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느 개인에게는 아주 ‘귀중한’ 것임에도 말이다. 국가차원에서든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만, 지방에서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사가 국가단위의 역사보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일상적이고 개별적이며 총체적인 삶을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일상이 물론 공문서 없이 복원되기 어렵다. 다양한 생애에 대한 부단한 기록을 추구하기 위해서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에도 공문서의 그것에 못지않은 새로운 체계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방식의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지역문화의 핵심인 지역성과 일상성이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 중요한 기록은 중앙에서 수집한 것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지방기록은 하찮은

것으로 여겨져서 많이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록장비가 부족하여 주로 중앙이나 전문가 기록한 것이 더 귀중하게 취급된다. 더 나아가 지방이 어느 소시민이 남긴 사진이나 글은 대부분 저장을 해놓아도 지금까지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다. 활용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수집되거나 정리되지도 않는다.

다음의 문제는 지방기록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기존의 아카이브 사업모델에서 아카이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관리하는 사람(생산자)과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용자/소비자)은 서로 분리되어 있었다. 현재 대다수 기록원의 형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 지방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취했다. 그렇지만 생산과 소비가 분리된 형태는 본질적으로 지방기록의 수요와 활용에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의 기록물은 마치 제품을 생산하듯이 전문성을 갖고 기록물을 정리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그것의 가치를 저장해두면, 누군가 그것의 가치를 활용하여 새로운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마치 자본주의 사회에서 숙련된 노동자가 제품을 생산하듯이, 숙련된 아키비스트가 아카이브를 만든다. 소비자도 그것이 생산되는 과정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바쁘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서 흔히 지적되는 노동자의 소외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을까?

쌍방향소통이 강조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올리는 미래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엄격한 구분이 사라진다. 자료를 발견하고 수집하고 정리할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기능까지 아니 다시 자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까지 맡은 사람이 진정한 미래형 아카이브 주체인 셈이다. 전문적인 아키비스트가 아닌 이용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지역주민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렇게 시민들이 주체로 나설 경우, 기존의 아카이브 활동에 큰 문제가 예상된다.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수집과 정리를 수행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이 업무는 물론 일정 부분 소수의 전문가에게 위임될 것이

다, 비전문가인, 말하자면 직업인이 아닌 이들의 활동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까? 전문 인력은 보상을 받으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아카이브 활동이 직업상의 업무가 아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쉽게 말하면 이들이 아카이브 활동을 ‘취미’로 하는 것이다. 활동에 대한 보상이 금전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혹은 ‘자기개발’의 방식으로 한다. 이때 보상은 성찰과 ‘자기교육’이다. 아카이브 활동이 즐거움을 가져다주거나 혹은 지적 혹은 성찰적 성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판매를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한 수공업적인 생산방식인 셈이다. 과거에는 아카이브에 노동을 투여하여 가치 있는 기록을 만들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삶과 과거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야 한다. 앞으로 지역아카이브는 이렇게 주민들의 기록문화를 향상시켜 스스로 지역의 특정한 문화의 콘텐츠들이 오가는 플랫폼 기능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10, 한국기록학회, 2011.
- 곽승진, <도서관의 미래상 : 라키비움(Larchiveum) 도입 방안>, 2013 디지털 도서관 심포지엄(문화융성의 시대,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의 대응전략)(2013. 5. 22)
- 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8권 1호, pp. 217-249.
- 김혜린, 「수원지역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민간기록물 관리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부산 산복도로 아카이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pp.143-161.
- 사진아카이브연구소 엮음, 『지역아카이브, 민중 스스로의 기억과 삶을 말한다』, (2010 인문주간 <기억과 윤리적 삶> 총 자료집), 2010.
-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26, 한국기록학회, 2012.
-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1호 2011, pp. 207-230.
-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 신해진, 「호남문화 아카이브 분류와 구성 체계화-호남문화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37, 호남문화연구소, 2005.
- 심성보, 「일상 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국제한국학연구』 5호.
- 오동욱, 『대구 근대자원 아카이브 구축전략』, 대구경북연구원 2011.
- 이해준, 「지역 기록물 관리기관 설립과 운영방향」, 『역사와 담론』 30, 호서사학회, 2001.
- 임미경, 「기초자치단체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정호식, <학술정보 발전을 위한 민간포털과 디지털도서관의 협력방안 고찰>.

2013 디지털 도서관 심포지엄 (문화융성의 시대,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의 대응전략)(2013. 5. 22)

조현양, 「국가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 2013 디지털 도서관 심포지엄 (문화융성의 시대, 디지털도서관의 역할의 대응전략)(2013. 5. 22)

지수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 한국기록학회, 2009.

최영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 융합에 의거한 라키비움 공간 기획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최윤진,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공주학아카이브 구축 사례와 지역학적 과제」에 대한 토론문

- 예산학, 어떻게 할 것인가?

표윤명(작가)

1. 들어가는 말

예산학에 관심을 갖고 지역민들의 뜻을 모으려는 방향 설정에 동의하며 예산학의 발전에 기대를 해 본다. 지난 2016년에도 예산지명 1100주년을 위한 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는 예산군에 제안을 한 적이 있다. 신청사 앞뜰에 백송을 식재하자는 것이었다. 백송은 예산의 대표적인 인물인 추사선생과 관련이 깊고 이 나무를 신청사 입구 양쪽에 식재함으로써 예산의 상징물로 가꾼다면 훗날 예산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제안이 과연 군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거나 했었는지 궁금하다. 이번 세미나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의견과 토론이 있어도 실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것들이 실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군이나 예산문화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2. 예산학, 지역민에 스며들기

먼저 우리 예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현실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예산은 1100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많은 이야기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관리 문화재만도 89점이나 보유하고 있다. 이는 충남에서 공주, 부여, 논산 다음으로 많은 수다. 그런데 이를 관리하는 전문 학예사는 2명뿐이다. 예산 군청의 소속 공무원이 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 학예사가 2명뿐이라는 것은 예산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추사와 윤봉길만 해도 전문학예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에 수덕사를 비롯해 가야산 유역과 불교유적, 전통가옥 등 전국 규모의 관리대상이 부지기수로 산재해 있다. 이를 2명의 학예사가 모두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추사고택과 충의사에 전문학예사를 두고 나머지를 권역이나 분야로 묶어 관리하는 학예사를 두었으면 한다. 이번 예산학 세미나에서 제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며 예산군에 제안한다.

송충기 공주대 교수의 <공주학아카이브 구축 사례와 지역학적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학의 주체는 전문연구가가 아닌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 예산학의 목적은 예산의 문화와 역사를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이를 지역 문화의 힘으로 키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전문연구가들이 하는 학술적인 내용은 사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해야 할 일이다. 지역학의 최종 목표는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2017년에 완료된 예산문화대전에 상당수 모아져 정리되어 있는 상태다. 이를 활용할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수집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활용이다.

예산학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수집된 상태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예산학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이것은 지역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해서 콘텐츠로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콘텐츠로 만드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지역민에 스며들게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예산학 강의 요원 양성이 있다. 일명 스토리텔러 양성이다. 이는 기존의 예산학 강사와는 다른 것이다. 문화해설사와 같이 예산의 역사와 문화 등 예산학 콘텐츠를 지역민에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강의 요원을 말한다. 문화원과 군청에서는 강의 요원의 강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지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예산학에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학술 강의는 사실 지역민에게 호응이 적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스토리텔링으로 엮은 이야기식 강의는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스토리텔링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훌륭하다. 추사를 비롯해 임존성과 백제부흥운동 이야기, 윤봉길을 비롯한 독립 운동가들 이야기, 각 지역의 설화 등 그야말로 얼마든지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예산학게시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산학 자료를 올릴 수 있는 디지털게시판을 마련해 놓고 지역민 누구나 자유롭게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와 자료를 올리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로 하여금 그 중 필요하고 중요한 자료를 선별하게 하고 이를 재가공해 콘텐츠화 하는 것이다. 게시판에서 채택된 자료는 소정의 상품내지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연나라 소왕이 매사마골(買死馬骨)로 천리마를 얻었듯이 적절한 보상을 주면 뜻하지 않은 좋은 자료를 얻을 수도 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 참여형 아카이브의 좋은 사례가 되기도 할 것이다.

3. 나가는 말

지역학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예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예산학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 우리들만의 세미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 1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예산학을 불과 1~3년 안에 정리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장기적인 계획과 진행이 필요하다.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예산학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예산학 연구의 과제와 방법

신의선(문학평론가)

1. 예산학의 태동과 생성과정

문헌상의 기록¹⁾으로 고려 태조 조에 ‘예산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이래 예산학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병신년이다. 그 동안 예산사람 그 누구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예산지역을 하나의 학문으로 설정하여 학문화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바 없다. 일찍이 정도定都 600년을 기념하여 서울지역에서 지역학으로써의 서울학²⁾이 논의된 일에도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특정지역에 대한 총체적이고 객관적인 이해³⁾로 정의되어지는 지역학을 연구 분석하여 주해하는 일 역시 고난과 고투 속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야만 하는 절대적 농업 기반 군郡인 예산군에서 생활하는 농민, 노동자는 물론 예산지역 식자층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게 무려 일천일백여 년 동안 예산지명을 써 오면서 전혀 예산학을 정립하지 않다가 예산학이 활발하게 회자된 것은 실로 최근의 일이다.

그 당년⁴⁾에 예산문화원을 중심축⁵⁾으로 마침내 예산 역사상 초유의

1) 『고려사절요』 권제일에 의하면 ‘改烏山城 爲禮山縣’이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나온다. 고려 태조2년, 서기 919년의 일이다.

2) 서울학,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서울시립대학부설 서울학 연구소가 1993년에 개소된다.

3) 김선호, 『지역학이란』,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2.

4) 병신년, 2016년의 일이다.

『예산학』 책자를 발간한다. 예산지역에서 예산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주로 대전 지역 거주의 집필진에 의하여 기술된 이 책은 예산의 역사지리와 문화예술을 요약하여 수록한 일종의 인문지리서 경향의 책자이다. 그리고는 그 이듬해인 정유년부터 작금에 이르기까지다. 예산문화원 주관으로 이 책자를 기본교재로 삼아 도서집필진이 예산지역 주민들에게 예산학이라 명명하여 강의하고 있다. 이것이 예산지역 예산학 태동에서 최근까지의 예산학 생성과정이다.

2. 예산학 연구의 과제

1) 예산학 연구에 있어서의 공간연구

현재 예산지역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예산학의 연구년도는 서울학 창립에 비하여 거의 25여년이 지난 시점이다. 비교적 뒤늦은 출발인데다 그밖에 지역, 부산학, 대구경북학, 영남학, 용인학, 청주학, 공주학, 홍성학, 기타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학 설정에 비하여도 뒤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타 지역보다 앞서 지역학을 정립하였다하여 그것이 기 지역학 설정지역에 대한 우월적 가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굳이 지역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모든 지역에는 그 지역만이 갖는 독특한 변별성이 존재한다. 통상 특정지역 고유의 정체성 혹은 동일성이라 부르는 이 변별성내지는 변별력이야말로 이름만 붙이지 않았다 뿐이지 기실

5) 예산문화원장, 김시운이 처음으로 ‘예산학’을 거론하여, 예산문화원에서 병신년(2016년) 12월에 『내포의 뿌리, 예산학』이라는 교재를 출간하다. 예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역학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아직 지역학을 거명 하지 않는 어느 지역이 지역학을 운운하지 않았다하여 그 지역의 인문지리 및 역사문화, 생태 환경이나 미래가치 등에 있어 이미 지역학을 발족시켜 운용하고 있는 타 지역보다 현저히 열등하다는 식의 가치론적 우월여부를 판가름 짓지 못한다. 당연히 예산학이 서울학 등의 앞선 지역에 비하여 다소 늦게 출범하였다하여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이 위축되거나 조급해질 그 무엇도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 그 첫째는 작금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지역학 연구방향이 소위 Local Study, 즉 협의의 지역학을 탈피하여 Global Study 즉, 세계 속의 지역학으로의 공간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까닭에서다. 세계 속의 지역학 개념으로의 전이로써 전 세계를 하나의 지역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Global 위주의 인식이 날로 확산 중에 있다. 인문 지리학적 바탕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학의 운용을 무한대의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켜 새로움에 합일케 하는 글로벌화 추세에 있어서의 세계화에 걸 맞는 지역적 테마 설정과 새로운 연구과제 발굴은 무궁무진하다.

둘째로는 공간연구, 혹은 공간의식구조 연구가 증대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사람에게 있어 최초의 우주는 집이란 공간이다.⁶⁾대문과 뒷마루, 안방, 사랑방, 좁은 미로들로 구성된 집 공간이 주는 우주적 드라마의 시작에서부터 도시건물의 마천루가 만들어내는 도시공간을 비롯한 공학적인 도시계획공간, 원초적 공간, 인지공간, 실존 또는 생활공간, 지리적 공간, 지각공간, 신성공간, 실용적 공간 등의 공간 연구는 지역학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기 족하다. 공간 하나하나마다 무진장한 스토리텔링의 울림이 존재한다.

예산이라는 소도시는 실상 농촌이라는 공간과 읍내라는 소도시 공간

6) 가스통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이 서로 어우러져 예산소리를 울리는 울림의 공간이다. 오직 예산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고유하고 아름다운 공간은 그 자체로 이미 문화재이다. 이들은 역동적인 예산의 울림이며 예산의 소리로 존재한다.

이 예산의 소리를 듣고 캐내는 작업은 예산학 연구에 있어서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다. 예산지역이 갖는 고유한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공간연구는 그 흥미와 즐거움, 미스터리함과 독창성에 비취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 연구 분야를 확장시키는 보고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이 지역학 정립에의 선후 개념이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으며 또한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이다.

2) 예산학 연구에 있어서의 시간연구

시간의 층위는 가장 강력한 역사문화의 생성인자이다. 시간을 공간과 엮어 시공간이라는 표현을 쓴다. 고려사절요에 언급된 예산현이라는 지명의 생명은 지금도 유효하다. 죽은 게 아니라 살아 있다. 이 예산이라는 생명체를 여하히 잘 보존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찬연히 빛나게 하느냐의 여부는 순전히 예산지역민의 몫이다.

지금은 이미 모두 명운을 달리하였지만 소위 3김으로 불리던,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제씨들이 야인시절에 유독 앞 다투어 찾아야 경배 드린 고장이 예산이다. 매헌 윤봉길 의사 영정과 위패를 봉안한 충의사가 그곳이다. 충의사는 매헌의 의거와 더불어 고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고 김영삼 대통령, 고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가 서린 곳이다. 상해의거 일을 기념하여 매년 개최되는 매헌문화제는 전국 최고최대의 인파가 운집하는 문화제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이곳 충의사에서 나와서 한국의 기호학파의 문맥을 잇는 병계 윤병구 선생이 살던 가야산 옥계계곡 방향으로 올라가다보면 아래산소로 불리는 묘역이 나온다. 흥선대원군의 장

형인 흥령군 이창웅의 묘소다. 남연군의 큰 아들이다. 아래산소를 지나 조금 더 올라가면 위 산소가 나온다. 이 묘소의 주인공이 남연군 이구李久다. 이구는 사도세자로 불리던 장헌세자의 손자이며 훗날 고종, 순종 두 황제의 친 할아버지다. 겨우 28살이었던 파락호 흥선군 이하응이 당시 영의정 김좌근을 움직여 경기도 연천의 남송정에서 이장하여 상여에 운구하여온 묘소이다.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패검으로 절지기를 살해한 뒤에 가야사를 불질러버리고 남연군을 모신 이 묘소는 원래 가야사의 대웅전이었다.

이들 중에서 한 꼭지만 파고 들어가 연구하면 조선의 역사가 탄생한다. 수덕사에서 훤히 내려다보이는 서해바다의 푸른 물살과 같은 한국의 역사가 예산학을 통하여 재조명 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예산학이 재생산해 내는 새로운 조선역사이자 예산 역사의 재탄생이며 예산학의 진정한 가치이다. 예산학을 심층 보완해 나가면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핏 살펴보면 수덕사를 품고 있는 사찰, 수덕사만 연구하여도 예산학 연구 자료가 차고 넘친다. 수백 명의 여승이 기거하던 정혜사는 대한민국 최대의 비구니 사찰이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이자 문인이었던 김일엽 선생이 스님으로 생활하다 입적한 곳이기도 하다. 또 여기서 일엽스님의 절친한 친구인 나혜석 화가도 수덕사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그림과 구도를 하였다. 행려병자로 사망하였지만 나혜석은 첫 그림전시회에서 그 당시 5천여 명의 하객이 운집하여 그녀의 그림을 관람할 정도의 한국최초의 여성 화가이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해방공간에서 명실상부한 조선의 지도자였던 신앙거주의 이정 박헌영이 나온다. 박헌영은 베트남의 국부로 존경 받는 호치민과 함께 소련에서 사회주의를 동문수학한 사이다. 조선공산당 당수 자격으로 평양의 김일성에게 임명장을 준 당사자이다. 예산대술면 출신의 이강국 역시 조선공산당의 거두였다. 시간의 층위에 켜켜이 쌓여 있으나 묻어버린 개인사를 조망하는 일 역시 예산학에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굳이 명명한다면 미시적 예산학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반면에 예산 임존성의 백제부흥군의 역사는 예산학에 있어서 거시적 예산학이라 부를 만하다. 부흥운동, 곧 전쟁이란 우리나라 최초의 혁명사에 기술할 만한 대사이기 때문이다. 임존성 아래 면암 최익현의 유해가 잠든 광지지역은 황제가 내린 경기도관찰사 제수를 거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의병장이 된 조선 의병혼의 고장이다. 눈으로 목격할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무형체의 시간을 일러 미래영겁의 환영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데아를 주창한 고대의 철학자 플라톤이지만 시간연구야말로 예산학 연구에 있어 주요 모티브 중 하나이다. 더 기막힌 일은 시신을 보고 시신의 나이를 예측한다는 점이다. 즉, 유기체가 살아 있을 때 그것의 몸체에 안정한 탄소-12(^{12}C)의 원자와 우주에서부터 대기 중에 형성된 방사선 탄소-14(^{14}C)의 비율을 따져 이 비율의 측정을 통해 유기체의 나이를 알아내는 기술도 시간척도의 한 방편이다.

예산에서도 예산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경덕왕 때의 고산孤山이 나오고 백제의 오산현烏山縣이 나오듯이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것은 다시 시간이 과학적 물리적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의식의 시간, 삶을 경험하는 방식으로서의 진정한 시간으로 이것만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의식의 시간, 진짜 시간이라는 설을 주창한 앙리 베르그송의 주장과 상통한다.

바로 이 위대한 변화의 역할이야말로 예산학 연구가 주목해야할 분야이다.

3) 예산학 연구에 있어서의 장소연구

예산학이 예산학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간의 주요 요소 중에서

장소는 매우 강력한 동인(動因)이다. 예산 땅에서 예산의 애환을 겪지 않은 이가 예산의 역사문화, 생활, 생태사를 거론하는 일이야 가능은하겠지만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한 단락의 학제(學題)에 불과하다. 예산만이 간직해온 수많은 관습과 신화는 장소의 신성성과 불변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그들 장소간의 지속적인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강화시킨다.⁷⁾ 이 애착이 애향심과 자긍심의 근간이다. 장소와 맺는 특수한 관계는 한 가족단위에서부터 한 지역사회와 국가에 이르기 까지 전통을 지키고 조상을 숭배하면서 성립된다. 월남과 월맹의 전쟁터 한 가운데가 되어버린 곳에서 피난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짓는 한 베트남 여인네는 “그래도 여기는 조상의 땅이고 그래서 나는 떠날 수 없다” 말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미국 토착 인디언들이다. 인디언들은 수십 년 간의 소송 끝에 미국을 강제로 점령한 백인들과의 소송에서 이겼다. 배상금으로 수십조 원의 배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디언들은 돈이 아니라 땅을 내놓으라며 다시 소송 중에 있다. 이미 합법적으로 명의가 수 십 차례나 바뀐 토지를 강제 환수하여 되돌려줄 법이 미국에 없다. 배상금을 수령하여 편히 살면 어떠냐는 물음에 인디언들은 말한다. “당신 같으면 조상이 살다 묻힌 땅을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겠느냐” 되묻는다.

즉, 경제논리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이 예산학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며 이것이 또한 장소가 갖는 피이하고도 불가항력적인 매력이다.

이처럼 장소에 애착을 갖게 되고 그 장소와 깊은 유대를 가진다는 것은 인간의 중요한 욕구이다. 장소에 주목하여 장소를 뿌리를 내리는 한 과정이라고 설파한 이는 시몬느 베이유이다. 그는 “인간은 누구나 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일부를 이루는 환경을 통하여 도덕적,

7) 에드워드 켈프,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 2005.

지적, 정신적 삶 전체를 영위해야만 한다.”⁸⁾고 주장한다. 이는 장소에서 현현하는 뿌리에의 욕망이 실상은 질서, 자유, 책임, 평등, 안전애의 욕망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란 반증이다.

예산에 산재한 장소의 특수성, 즉 추사고택, 조익선생 묘역, 면암 묘소, 동학혁명 유적지, 임존성, 예산산성, 예당호, 충의사, 삽교평야, 황새공원, 덕산온천, 천주교도 순교지 등등을 비롯하여 예산읍, 삽교읍, 응봉면, 고덕면, 대술면, 대흥면, 봉산면, 광시면, 신암면, 신양면, 오가면 등의 행정구역은 물론 예산사람이 아니고는 도저히 판별이 불가능한 나븐들고개, 말탄바위, 찢러쿵 바위, 묘순이 바위, 어여고개, 아리랑고개, 세울, 마전, 오형제바위, 선질바위, 거머리들, 한젯별, 산직별, 시목골, 덕대골 등등의 특이 장소에 대한 연구는 새롭고도 경이로운 예산학의 자료들이다. 예산 사람들의 삶의 지평을 넓혀줄 장소에 대한 개괄적이고도 심층적인 고찰은 장차 예산학이 깊어가야 할 주요연구 과제중 하나이다. 예산의 고유한 정서와 예산의 정겨운 감성이 녹아 흐르고 있는 까닭에서다.

3. 예산학 연구 방법

예산학이 명실상부한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학제를 선정하여 심오한 연구와 치열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 여기에는 실체적 고증에 의거한 논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교적 장구한 시일을 필요로 하더라도 차분하게 예산의 문화 유물 유적연구 및 사회제반 현상, 곧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 청소년 학습, 공동체의 의식제고, 평생학습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지역 내

8) 시몬느 베이유, 『뿌리에의 욕망』, 1995.

에 만연한 불신풍조 대책, 지역민의 인격함양, 여성복지 등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육성시키는 일도 적극적으로 재고하며 이들을 예산학연구방법의 한 줄기로 흡수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예산학은 지역주민들을 주인으로 섬겨가는 학이 되어야 한다. 예산지역주민들이 호응하고 예산지역주민들이 공감하며 예산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참하는 예산학, 예산학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예산학이 진정한 예산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이라는 시간, 예산이라는 공간, 예산이라는 장소에 관한 종합적 고찰이 선행되어 예산학 연구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되어지는 학제의 결론도출이 새로운 예산의 신명나는 패러다임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새 시대를 꿈꾸는 예산, 예산사람들로 거듭나게 하는 예산, 예산학의 연구방법이며 마땅히 예산학연구소가 존립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이다.

4. 결어

충남의 정중앙에 위치한 예산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는 평야와 산야가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월형의 내륙으로 농토가 기름지고 수리시설이 발달하여 농업이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완만한 야산에는 과수업이 크게 발달하여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이며 목장이 많아 목축업도 크게 번성한 곳이다. 예산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천, 평야, 전답, 초목, 송림, 논축산물, 지형지세, 유물유적은 모두 다 예산만의 자랑이자 예산사람들을 낳고 키워준 정겹고 살뜰한 어머니의 고살이다.

예산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서 성혼하여 아이 낳고 살다가 다시 되돌아갈 존귀한 물상들, 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피붙이이고 살붙이라 하여

어찌 과언이라. 엄동설한에 예산과수원에 들어가 보면 겨울 냉기보다 먼저 진한 사과향이 코를 진동시키는 곳, 낙과하여 반 이상이 썩은 사과도 제 몸을 제물 삼아 향기를 뿜어내는 예산을 연구하는 예산학이 또한 예산의 미래라 하여 어찌 망발이라. 예산, 예산사람들이 한테 모여 예산학을 배우고 익히며 연구하는 예산학연구소야말로 예산의 혼령들이 집결한 피와 눈물과 땀의 결정체라 하여 누가 시비하랴. 이렇듯 예산은 예산학연구소를 통하여 새로운 예산, 혁신하는 예산, 정결한 예산, 위대한 예산, 비전과 꿈이 넘치는 꿈의 고장으로 탈바꿈해야할 절대명제를 안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 및 예산학연구소는 결국 지역발전 같은 거대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예산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과 청소년들, 젊은이들 스스로가 예산학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흥미와 애정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고결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 미시담론에 예산학 연구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예산학연구의 과제와 방법」에 관한 토론문

김중옥(전 공주대 교수, 예산문화원 이사)

발표자께서는 예산학연구소에서 연구되어야 할 내용들을 도출함에 있어서 예산에 산재되어 있는 유물, 유적, 문화재, 그리고 예산에서 태어난 인물 등을 대상으로 연구할 자료들이 풍부함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산학 연구소가 설립되고 예산학연구가 효과적이고 가치 있게 이루어지려면 예산학연구소가 수행해야할 프로그램들의 선정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예산에 의미 있고 미래에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심도 있는 토론과 신뢰할 수 있는 고증을 거쳐 확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먼저 ‘예산학의 정의’ ‘예산을 대표하는 정신’ ‘예산학연구소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들이 수행되었을 때 예산군민은 물론 전 국민한테도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는 내용들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예산학 교재 · 예산학 특강(개요)

예산학 교재 — 『내포의 뿌리, 예산학』 개요

주	분류	강의주제	핵심내용
1	지역학	내포의 뿌리 예산학	* 예산학의 필요성, 개념과 목적 * 국내외의 지역학의 추이와 동향 * 예산학의 내용, 방향과 연구과제
2	지리와 역사	1100년 예산의 지명과 지리	* 예산의 지명 및 지리와 환경
3		예산의 역사	* 예산의 시대별 역사와 문화 (현대까지의 역사적 큰 흐름)
4	선비의 고장, 예산	예산의 유교적 학맥과 학풍	* 예산 선비의 유교적 학맥과 학풍
5		예산의 충효예와 선비정신	* 예의의 고장 * 예산의 충효예 사례와 선비정신
6		묵향(墨鄉), 문향(文鄉)으로서 의 예산	* 묵향 : 김구, 이산해, 이서, 김정희 * 문향 : 문장가 및 국문학의 선구 등
7		항일독립운동	* 윤봉길 등의 항일독립운동으로 본 예산인의 충의정신
8	공동체 사회와 민풍	예산의 마을공동체 -예산 대흥-	* 향촌 마을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 (예산 마을연구의 결과 정리)
9		예산이야기	* 예산의 인정 : 벗짚 형제의 우애 * 예산의 숨은 이야기 : 효녀 심청
10		예산의 축제문화	예산의 전통 축제와 축제 문화

11	돌보이는 문화유산	추사와 추사체	추사 김정희와 추사체
12		예산의 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사 고택(김정희 고택) * 수당 고택(이남규 고택, 1637) * 이광임고택(이색, 이산해 후손가-1820) 등
13		예산의 불교미술 -사면석불과 수덕사 대웅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면석불 * 덕숭산의 수덕사 대웅전
14	실학풍과 여성문학	실학을 이끈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를 앞서간 실학적 인물들 * 서학의 수용
15		여성문인과 여성문학	* 예산의 여성 문인과 여성문학
16	내포의 뿌리, 예산	예산의 내포물길과 예산의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포 역사의 시원지 예산 * 보부상 이야기와 호서은행의 역사 * 예산의 비전(내포의 개발과 예산)

2018년 예산학 특강 내용 - 예산학 교재의 보완

주	분류	주제	비고
1	지역학	지속 가능한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	지속성 방안 찾기
2	지리와 역사인물	예산의 고지도와 지리지	예산학총서 1
3		문화유산으로 보는 예산 역사	문화유산과 역사
4		나의 할아버지 예산인 윤봉길	역사인물 집중 분석
5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	유학의 현대적 가용성과 지역학의 평생교육	유학의 가용성과 평생교육
6	세거성씨와 문중	예산의 세거성씨와 문중(1)	성씨/문중
7	예산 이야기	이야기로 풀어보는 예산의 금석문(1)	금석문 이야기
8		야곡 조극선의 일기 - 17세기 덕산 사대부가의 생활사 이야기 -	일기로 본 선비의 생활사
9		예산의 소리 - 저자와의 대화	(새 책 1) 예산의 소리
10		예산 상인 이야기 - 저자와의 대화	(새 책 2) 예산의 상인
11	전통미감의 현대화	추사 미감의 현대화 가능성	전통과 현대의 접맥

12	사적지 활용	예산 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활용방안	유적 활성화 방안
13	디지털 아카이브	예산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모색	자료수집 정리 방법
14	산업과 지역학	예산 농공산업단지의 육성과 지역학	산업과 지역학 연대
15	세계화 방안 모색	지역문화유산의 특성과 세계화 방안 - 세계유산 지정 및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화 방안

『내포의 뿌리, 예산학』 중의 예산학 총서

분류		내용
교재총서	<내포의 뿌리 예산학>	예산학이란 무엇인가? 예산의 '정체성' 그 연원과 배경, 그리고 비전
연구총서	<예산학 연구>	○ 예산학 연구저널 : 예산의 제문제에 대한 학술연구 (세미나, 학술대회, 포럼, 콜로키엄 등)
	<다음 예산학>	○ 예산의 특징 찾기(예산다움과 예산인다움) 탐구 ○ 문화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기획
멘토총서	<멘토 예산학>	멘토 예산인의 올림과 소통 예산인의 정신적 삶의 질 향상 추구
생활총서	<생활 예산학>	예산 주민의 일상생활사 연구 주민의 삶의 방식 연구, 삶의 질 향상 추구
자료총서	<예산학 자료집>	예산학의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집 및 자료 집성(D/B)

예산학 연구 발전 세미나

**지역학으로서의 예산학의
지속 가능성 검토**

발행일	2018. 8. 23.
발행인	김시운
발행처	예산문화원
주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천변로90번길 3
	전화 : 041-335-2441 팩스 : 041-334-4330
	사이트 : http://www.cnkccf.or.kr/yesan.do
디자인·인쇄	누마루

<비매품>